2026 제일학원 성공스토리

비로소 완성된 꿈을 이룬 순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p.05

여러분은 분명 저보다 끈기 있고, 근성 있고, 성실할 것이기에

권민정 (유성여고)

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 합격

제가 설정한 목표가 '이 정도만 가도 만족하는 수준'의 기준선은 이미 마음속에 존재했습니다. 아마 수능을 석 달도 채 남겨두지 않았을 때였을 겁니다. 꾸지람을 듣고 나니 그제야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미 몇 년을 헛되게 보내온 주제에, 안일하게도 제가 진정으로 실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남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성실하게 재수 생활에 임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 저보다 끈기 있고, 근성 있고, 성실할 것이기에 '터무니없이 높다'고 느껴지는 목표에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p.07

현실을 직시하자!

김건아 (보문고)

숭실대학교 자유전공학부(인문) 합격
아주대학교 자유전공학부(인문) 합격

단순히 많은 강의를 보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해 피드백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니 제 문제점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9월 모의고사 날, 저는 국어 백분위 99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본 대부분의 시험에서도 1등급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느낀 것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매우 힘들지만 동시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눈 돌리지 않고 자신의 문제점을 명확히 바라봐야 합니다.



p.09

오늘 쌓은 노력이 내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김민지 (충남여고)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 합격

'오늘 쌓은 노력이 내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를 매일 외치며 재수생활을 했습니다. 아마 수능을 준비하며 수학 공부를 꾸준히 했기에 제가 수리논술로 합격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하루하루의 작은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p.12

매일 기본 개념을 탄탄하게!

김태윤 (지족고)

한양대학교(ERICA) 디자인계열 합격

합격수기를 쓰면서 막상 1년을 되돌아보니, 성적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많이! 남지만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온 나 자신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재수는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할 수 있었던 값진, 금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수는 실패가 아닌 또 다른 기회이자 시작이므로 너무 우울하게만 지내지 말고 대학에 가겠다는 확실한 의지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입시를 준비하다 보면! 성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14

예체능을 전공하는 후배들을 위한 입시 전략!

김희원 (전민고)

국민대학교 미래융합전공(C) 합격

상위권 미대를 목표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대학에서 점점 예체능 학생들에게 높은 성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능에서 높은 성적을 받으면 수능 이후 실기 집중 기간에 실기 준비를 더 마음 편히 할 수 있고 대학의 선택지도 많아지기 때문에 성적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역이나 재수가 아닌 삼수를 하고 있다면 수능 전 실기 수업의 비율을 줄이는 것을 깊이 고민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p.16

나만의 꾸준한 복습 루틴을 만들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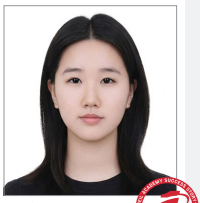
박성연 (유성여고)

고려대학교 보건환경융합과학부 합격
한양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부 합격
서강대학교 AI기반자유전공학부 합격

수능 공부의 가장 중요한 점은 꾸준함인 것 같습니다.
수능 공부를 하면 가장 장애물이 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흔들리고 성적이 오르지 않는 모습을 보면 지금 하는 공부가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이때 종합반의 선생님들과 상담하고, 다시 한번 스스로를 믿으며 꾸준함으로 공부하며 그 기간을 이겨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꾸준함과 자기 확신만 있다면 수능 날 그것들이 양분이 되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2026 제일학원 성공스토리

비로소 완성된 꿈을 이룬 순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p.19

하루하루를 쌓아보세요!

박정하 (충남여고)

서울교육대학교 합격

재수는 저에게 단순히 한 번 더 도전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 1년 동안 저는 실력뿐 아니라 태도도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알고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 그리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쌓아가는 것. 그 과정이 모여 결국 서울교육대학교 합격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도전을 고민하고 있다면, 완벽한 준비보다 오늘의 한 시간을 성실히 채우는 것부터 시작해 보셨으면 합니다.



p.22

개념이해의 중요성!

박주환 (보문고)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합격
서강대학교 AI기반자유전공학부 합격

1년간 수능을 공부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나의 미래에 정말 소중한 20대의 1년을 바친다는 것이 지금 당장은 불안하고 막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이른 아침에 학원에 등원하고, 오자마자 국어 공부를 시작하며, 똑같은 시간에 밥을 먹으며 수업을 듣고 밤 늦게까지 자습을 하다 집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꾸준히 쌓인 노력들은 여러분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이고 저처럼 1년간 참고 잘 버티다 보면 원하시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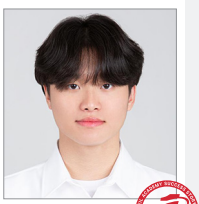
p.24

균형잡힌 공부습관으로 원하는 대학 가자!

박채영 (유성여고)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합격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영화) 합격

제가 제일학원 재수종합반을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생활패턴 형성' 때문이었습니다. 정해진 시간까지 등교해서 아침 조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늦잠자지 않고 정시에 등교하려 노력했습니다. 반강제로 아침일찍 등원하다 보니 일찍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공부하기 좋은 컨디션을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철저한 관리'입니다. 담임 선생님과 조교분들이 주기적으로 순찰을 도셔서 게으름을 덜 피우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졸고 있으면 깨워 주시고 스탠딩 책상에서 공부해 보는 건 어떻겠냐 권해 주셔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p.26

대나무는 마디가 있어야 더 높이 자란다

유준혁 (서산서일고)

중앙대학교 첨단소재공학과 합격

합격은 결코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버텼다면, 모르는 것을 외면하지 않고 한 번 더 들여다봤다면 여러분은 이미 합격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책상 앞에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계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합격수기가 여러분의 길고 고된 여정에 따뜻한 등불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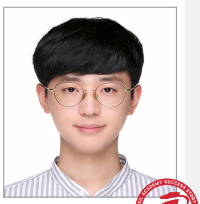
p.28

매일의 노력이 모여 하나로!

이민기 (대성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계공학과 합격

수능은 당일의 운으로 한 번에 결정되는 시험이 아닌 매일의 노력이 모여 성적을 결정하는 시험입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불안하더라도 당장 눈앞에 있는 해야 할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수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줄어들고 수능 날 최고의 점수를 받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글을 읽는 모두가 내년 봄, 원하던 캠퍼스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p.30

찬란하게 빛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하여!

이승환 (공주사대부고)

단국대학교 약학과 합격
건국대학교 의예과 합격
충북대학교 의예과 합격

제일학원의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철저한 관리 시스템 덕분에 저는 마침내 목표로 하던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합격수기를 통해 제일학원의 모든 선생님들과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끝이 잘 보이지 않는 입시의 터널 속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간다면, 터널 끝에 환한 출구가 보일 것입니다.
앞으로 찬란하게 빛날 여러분의 청춘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2026 제일학원 성공스토리

비로소 완성된 꿈을 이룬 순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p.33

너는 지금 작지만
너는 이미 크다

이준희 (검정고시)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합격
경희대학교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합격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합격

수능에 대해 1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해 본 만큼 특히 노베이스 분들께 도움이 되기 바라며 합격수기를 쓰게 됐습니다.
수능 공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힘들이지 않거나 괴롭지 않고 점수를 올리는 방법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지엽적인 스킬과 같은 편법에 매몰되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시기별 루틴을 지키며 끝까지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p.35

작은 노력이 모여
큰 성취를!

임건희 (대신고)

단국대학교 치의예과 합격
단국대학교 의예과 합격
대전대학교 한의예과 합격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마음가짐과 꾸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 공부를 하고, 밤늦게 잠드는 반복적인 생활 속에서 분명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1년 동안 목표를 향해 열정적으로 공부해 본 경험은 기억에 깊게 남아 좋은 밑거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일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결승선을 웃으며 통과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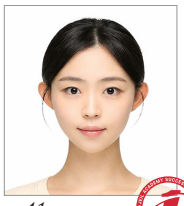
p.38

끝까지 생각해보고
고민을 해보는 끈기가 중요하다!

정용재 (용산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신소재공학과 합격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합격

마지막으로 저는 n수의 n을 2로 마무리하고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고민과 힘듦이 있었고 어느 정도의 아쉬움도 남지만 결국 제 힘으로 수능점수를 올려서 대학을 갔다는 것에 대해 뿌듯함도 있습니다. 무언가 하나에 정말 열심히 했던 경험이 앞으로 저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수를 하다가 힘드시면 담임선생님을 찾아가세요. 도움을 많이 드릴겁니다:) 제일학원에서 공부하시면서 좋은 성적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p.41

꾸준하게 지문을 읽는 습관,
곧 행복의 시작!

정채희 (호수돈여고)

원광대학교 치의예과 합격

제가 대학에 간 친구들의 일상을 부러워하며 끊임없이 했던 생각은, '나도 대학에 가면 행복해질 수 있겠지?'였습니다.
재수를 하거나 그 이상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께 이 말은 이해되지 않거나, 어쩌면 기만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아주 사소한 점이라도 행복이라 느끼고 살아가는 것은 매일을 버텨내는 것에 꽤나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하루에 하나씩 사소한 행복을 찾아가며 버텨보시길 바랍니다.



p.43

그 누구보다도
우직하고 당당하게!

정혜민 (반석고)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합격
서울시립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합격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합격

대학에 합격하는 것도 물론 정말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 또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말을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지나간 점수는 이미 지나간 점수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재수하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시험을 보게 될 텐데, 그것 하나하나에 감정을 소모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서 부족한지, 무엇이 빠졌는지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만 힘쓰셨으면 합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린 만큼, 이 기나긴 1년의 끝이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였으면 좋겠습니다.



p.45

나 자신만의 루틴,
목표를 이루는 지름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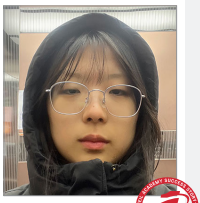
조서연 (용산고)

국민대학교 미래융합전공(C) 합격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합격

저는 본래 멘탈이 강한 사람이 아니었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무너지는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수생활 중간중간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가끔 너무 버거워서 다 포기하고 싶은 기분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자나 깨나 비교의 연속인 이 생활이 대체 언제쯤 끝날까? 정말 끝나기는 하는걸까?… 하지만 여러분 결과가 어떻든 간에 모든 일엔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의 노력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겁니다. 하루를 끝마치고 침대에 누워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일과를 보냈는지 떠올리며, 자신을 믿어주고 다독여주세요.

2026 제일학원 성공스토리

비로소 완성된 꿈을 이룬 순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p.47

비 갠 후 맑음!

조윤서 (대전여고)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계열 합격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합격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부 합격

재수 생활이 길어지다 보면 모든 것이 지겨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 그냥 모든게 다 지겨워져요. 저는 등원 방법을 바꾸거나, 정독실과 공부공간을 바꾸는 등작은 환경 변화를 주면서 버텼습니다.
익숙해질 때 쯤에 환경을 한 번씩 바꿔주는게 숨이 안 막히더라고요.
하루하루 할 일을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수능 끝나있고 생판 다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제일학원에서의 재수 생활은 수능 공부뿐 아니라, 제 생활과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도움을 주신 많은 선생님들과 제 지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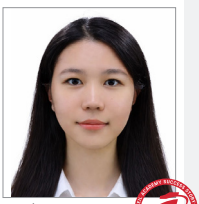
p.50

어떠한 실패가 와도 부서지지 않으면 더 강해질 뿐

조은정 (문정여고)

우석대학교 한약학과 합격

저는 14년도 한국교원대학교에 입학하여 졸업 후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5년 넘게 직장생활을 하였고, 24년도부터 노베이스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제일학원은 처음 입학상담 때부터 저에게 재도전에 대한 희망과 격려, 그리고 앞으로의 공부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었습니다. 장학금 혜택도 좋아서 내가 실패라고 여겼던 도전이 제일학원에서 장학금을 받고 학원에 다닐 수 있게 해주는구나 하는, 그래도 무언가를 이룬 듯한 성취감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건 곧 다시 한 번 재도전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고 진로상담 또한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p.52

뚜렷한 목표를 세워라!

최의정 (성모여고)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합격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합격

수능까지의 여정을 마라톤이라 생각하시고 너무 급하게 초조해할 필요 없이 온전한 페이스를 유지해 완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많은 모의고사들을 보게 될 텐데 그 점수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줏대 있게 본인이 정한 대로 나아가면 분명히 빛을 발하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믿는 그 힘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여러분들을 종착점까지 이끌어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2026학년도 합/격/수/기

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 합격

권민정 (유성여고)

여러분은 분명 저보다 끈기 있고, 근성 있고, 성실할 것이기에

저는 고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했습니다. 매일 결석을 일삼으며, 유급을 당하기 직전까지 외줄타기하듯 출석 일수를 겨우 채웠기 때문입니다. 정시에 전념한다는 핑계로요. 학교를 빠지고 수능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의미 없이 보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25학년도, 그러니까 제가 현역이었던 해의 수능을 대차게 망쳤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원서를 넣기조차 민망할 만큼의 성적을 받은 저는 재수를 결심했습니다. 어쩌면 예정되어 있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사소한 표현이 아니라, 제가 재수 생활 또한 그리 성실하게 보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설정한 목표가 사실 저에겐 터무니없이 높다는 점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고, '이 정도만 가도 만족하는 수준'의 기준선은 이미 마음속에 존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불성실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종혁 선생님께 호되게 혼이 났습니다. 아마 수능을 석 달도 채 남겨두지 않았을 때였을 겁니다. 꾸지람을 듣고 나니 그제야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미 몇 년을 헛되게 보내온 주제에, 안일하게도 제가 진정으로 실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남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성실하게 재수 생활에 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 정도만 가도 만족하는 수준'의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이를 불성실하게 살아온 대가로도, 마지막 석 달 간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재수학원에서도 결석이 잦았던 제가 해냈다는 사실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분명 저보다 끈기 있고, 근성 있고, 성실할 것이기에 '터무니없이 높다'고 느껴지는 목표에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심을 담아,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아래는 제 국어 공부법입니다. 언어 과목만으로 시립대학교에 진학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자신이 있기에, 부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첨부합니다.

먼저, 국어는 '내 생각'이 길어질수록 불리합니다. 선지의 정오에 대한 근거는 모두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데, 내 생각에 매몰

06

되다 보면 엉뚱한 답을 고르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공부할 때는 평가원 기출 위주로 학습하되, 지문의 단락을 나누고 선지까지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고른 답이 오답이라면, 왜 틀렸는지를 무작정 해설지에서 찾기보다 우선 지문에서 그 근거를 찾고 넘어가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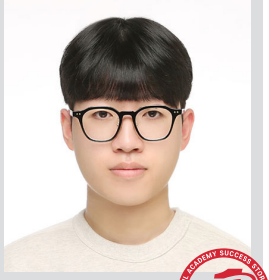
비문학보다 문학에서 더 고전하는 수험생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수능 문학을 시집이나 소설책을 읽듯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비문학을 까다롭게 느끼지 않는다면 지문과 선지의 구조를 잘 파악하고 있는 수험생일 가능성이 높으니, 문학 또한 비문학을 풀 듯이 내용을 꼼꼼히 파악하고, 선지와 지문의 일치 오류를 따지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비교적 쉽게 해소될 것입니다.

또한 문학은 사설 문항이라 하더라도 가능한 한 많은 문제를 풀어 다양한 작품을 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호칭 명사(예: 원수, 소저, 할멈, 제 아내 등)에 주목해 무엇이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지 파악한다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다시 한 번,이 글을 읽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목차 보기

2026학년도 합/격/수/기



숭실대학교 자유전공학부(인문) 합격
아주대학교 자유전공학부(인문) 합격

김건아 (보문고)

현실을 직시하자!

안녕하세요! 2025년 2월 말부터 수능 전날까지 제일학원에서 재수했던 김건아입니다.
저는 현역 때 수시 6장이 모두 떨어져 재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수시로 대학에 갈 것으로 생각하고 제대로 된 수능 공부도 해본 적이 없었기에 앞이 막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올해 새로운 도전을 하실 분들께 저와 같은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이 글을 적습니다.

1. 제일학원을 선택한 이유

지원한 모든 대학에 떨어진 저는 재수학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주변에서 많이 들어 본 제일 학원과 몇 개의 재수학원으로 후보를 좁힐 수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독학 재수학원을 가기로 마음먹었으나 부모님의 반대로 제일학원 재종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재수하면 자연스레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에 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작한 재수 생활 동안 생각보다 쉽게 유혹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에 대한 실망도 많이 했고 동시에 더 돌아보고 발전할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깨달은 것은 짜인 커리큘럼 없이 스스로 공부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재수 초반 혼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던 저는 수업도 최소한으로 들으며 제일학원의 틀 밖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처럼 오르지 않는 성적과 당시 저희 반의 담임을 맡아주셨던 이종혁 선생님의 조언으로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수업을 들어보니 왜 선생님이 그런 조언을 해주셨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수업이 나와 맞지 않더라도 꾸준히 듣다 보니 숙제와 같이 '해야만 하는 일'이 생겼고 점차 공부에 관성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틀이 잡히고 관성이 생기니 점차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는 공부가 안되어도 계속 앉아 있었고 몸이 안 좋아도 학원에 나오려고 노력했습니다.

2. 공부에 대해

저는 국어를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책도 많이 읽는 편이었고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도 국어 내신은 1등급, 모의고사는 공부하지 않아도 3등급 이상은 항상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역 수능에서 국어가 4등급이 나왔습니다. 수능 성적표를 받은 저는 너무 긴장해서 그런 것이라고 자기 위안을 했습니다. 재수를 시작한 후 아무 계획 없이 무작정 많은 수의 국어 문제들을 풀었습니다. 유명 강사의 강의를 들으며 유명한 문제집을 풀면 성적이 오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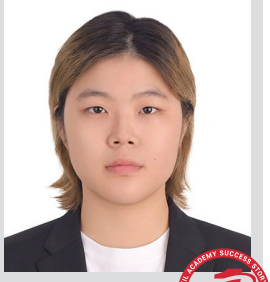
과는 제 재수 생활의 절반 정도가 지난 6월 모의고사에서 성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수능보다 떨어진 4등급 후반의 성적이 나왔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점수가 나온 것이 억울했습니다.
집에 가서 부모님께 성적을 보여드리기도 부끄러웠고,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담임선생님께도 죄송했습니다.
그 이후 떨어진 성적의 원인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고 나온 결론은 제가 '회피'하며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성적은 변함이 없고 다른 친구들과 달리 혼자 재수학원에 다니는 현실을 회피하고 싶어 공부하는'척'을 했습니다. 유명하다는 선생님들의 커리큘럼을 기웃거리며 정작 깊이 있는 공부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깨닫고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단순히 많은 강의를 보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해 피드백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니 제 문제점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9월 모의고사 날, 저는 국어 백분위 99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본 대부분의 시험에서도 1등급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느낀 것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매우 힘들지만 동시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눈 돌리지 않고 자신의 문제점을 명확히 바라봐야 합니다.

3. 마치며

결과적으로 저는 1년 동안 5과목에서 총 12등급을 올렸습니다. 물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후회되는 부분들도 있으나 저는 재수 생활을 한 1년이 단순히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인생에서 이번 1년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러기를 바랍니다.

목차 보기

2026학년도 합/격/수/기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 합격

김민지 (충남여고)

오늘 쌓은 노력이 내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안녕하세요! 저는 수리논술로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에 합격한 김민지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수험생활을 돌아보며, 그 과정에서 얻은 팁과 마음가짐을 나누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1. 재수를 시작한 이유
저는 현역으로 대학을 합격한 후 1년 동안 대학을 다녔습니다. 1년 동안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목표했던 대학 및 과에 미련이 남아 6모, 9모를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공부와 수능 준비를 병행하는 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휴학 후 수능에만 집중해 제대로 도전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2. 제일학원의 장점
제일학원을 선택한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수업을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다.
(2) 다양한 학습 콘텐츠(시대인재 콘텐츠 등)를 이용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각 과목이 수준별로 나뉘어 수업이 진행되어 자신의 실력에 맞는 수업을 선택해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또한 부족하다고 느낀 과목은 다른 수업의 시간표와 겹치지 않는 한 여러 개의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저에게는 큰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저는 국어가 약점인 과목이어서 국어 독서 수업을 두 개 수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매주 일정한 분량의 학습 콘텐츠를 제공받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저는 각 요일마다 어떤 콘텐츠를 풀지 미리 정해두어 학습 루틴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일학원을 선택했지만, 원할 때 담임선생님과 상담할 수 있다는 점이 제 재수 생활의 큰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담임선생님과의 상담 과정에서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의 목표를 단계

별로 설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과목별 공부량이나 공부시간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셔서 매주 안정적인 학습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지칠 때마다 곁에서 항상 응원해 주신 덕분에 끝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3. 공부 방법
저는 혼자서는 공부를 꾸준히 이어가지 못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숙제'가 주어져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강보다는 학원 수업을 더 많이 활용했습니다. 수업을 들은 날에는 배운 내용 복습하고, 복습을 하면서 헷갈리는 개념을 보완하기 위해 인강을 활용했습니다. 숙제는 시간이 허락되면 그날 바로, 그렇지 않다면 다음날에 완료했습니다.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특히 과학 과목의 경우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다음날 문제를 풀면 아직 덜 정리되거나 외워지지 않은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습니다.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무조건 질문했습니다. 저의 취약과목인 국어와 처음 선택한 과목인 지구과학을 가장 많이 질문했습니다. 국어의 경우, 학원에서 시행한 시험지를 들고 선생님께 가서 개선할 부분과 방법에 대해 여쭈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 달 동안 공부하고 시험을 보고, 다시 시험지를 들고 가서 피드백을 받는 방식으로 성적을 향상시켜 나갔습니다. 지구과학의 경우, 처음 공부하는 과목이어서 현상의 원리와 이유를 확실히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께 질문하여 오개념이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어와 마찬가지로 시험지를 들고 가서 문제 풀이 방법이나 속도, 문제 접근 방식을 점검하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4. 수능 후 마음가짐
사실 수능 전에는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시험을 보면 점수가 잘 나오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제 인생에서 어떠한 목표를 위해 이렇게 노력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능을 치르고 가채점을 해보니 목표했던 대학에 합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날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수시로 지원한 논술도 '내가 과연 논술로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1년 동안 수능 공부만 했고 수리논술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적이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수능은 수능이고 기회가 남았다면 그 마지막 기회는 놓치지 말아야지."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정신이 들면서 '기회라도 남은 게 어디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비록 이틀이지만 제일학원의 수리논술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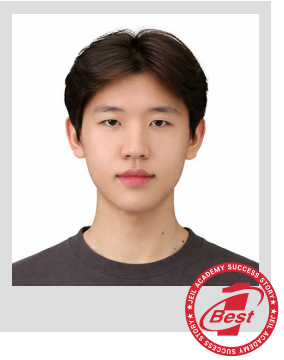
5. 수리논술
저는 논술 준비를 하면서 저만의 풀이 순서 및 주의할 점을 확립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예상 문제와 전년도 기출문제를 풀고 첨삭을 받으면서 제가 부주의하게 지나치거나 실수하는 부분을 노트에 정리하여 다음 문제 풀이 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제가 노트에 적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위에 주의하자.
(2) 그래프를 그릴 때에는 증감표를 그리자.
(3) 수리논술 문제는 숫자가 예쁘지 않다. 답이 이상하게 나와도 쫄지말자.
문제를 풀 때 이러한 행동강령을 참고하니 부담감이 줄어들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6. 2027 수능 및 논술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쌓은 노력이 내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를 매일 외치며 재수생활을 했습니다. 아마 수능을 준비하며 수학 공부를 꾸준히 했기에 제가 수리논술로 합격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하루하루의 작은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목차 보기

2026학년도 합/격/수/기



한양대학교(ERICA) 디자인계열 합격

김태윤 (지족고)

매일 기본 개념을 탄탄하게!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한 해 제일학원에서 공부한 김태윤이라고 합니다.
제일학원에 들어오기 전, 한번도 제대로 수능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처럼 걱정이 앞설 2027 대입을 준비하는 여러분과 학원 생활 중 겪어온 경험, 그리고 저의 전반적인 입시 과정을 공유해보고자 글을 적습니다.

저는 디자인 관련 진로를 희망하여 다른 학생들과 달리 실기를 함께 준비해야 했습니다. 디자인 수시는 성적보다 실기가 비교적 중요한 반면, 정시는 성적 반영비율이 높아 실기와 성적 관리의 비중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저의 경우,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최상위권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 비해 실기에 더 비중을 두었습니다. 3월부터 8월까지는 정규수업이 끝난 후, 매일 6시부터 미술학원에서 실기를 준비했고, 9월부터 수능 전 주까지는 금요일과 토요일만 실기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조절했습니다.
공부에 대한 습관이 잡혀있지 않고, 백지상태로 시작한 재수여서 선택과 집중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초반에는 한 과목에 집중하기보다 모든 과목을 전반적으로 공부했고, 영어가 꾸준히 원하는 등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국어와 탐구에 더 비중을 두어 공부했습니다.

국어의 경우, 쉬운 문제는 틀리지 않는 전략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킬러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독서보단 비교적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문학에 집중했습니다. 문학은 수특, 수완을 기반으로 알고 있는 작품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푸는 연습을 하고, 독서는 매일 3~4지문 한수 오일장과 시대인재 컨텐츠를 천천히 곱씹어 풀면서 독해의 감각을 기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능 두달 전 부터는 한 지문당 6분에서 13분까지 시간에 맞춰 푸는 연습을 하고, 학원 프로그램인 수능 실전체화 프로그램을 통해 매주 국어 모의고사 한 세트를 실제 시간 80분에 맞춰 풀며 시간관리 연습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대인재 서바이벌 컨텐츠가 시간 관리 연습에 큰 도움이 되었고, 육근일 선생님께서 수업 교재 외 나눠주신 프린트물이 수특, 수완 문학 작품 학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탐구의 경우, 저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을 선택했고, 윤리 과목은 사상가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상가를 학습할 때, 글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 뜻을 해석하는 단순 암기 보다는 혼자 생각하고 고민하는 방식으로 공부함으로써 그 사상가가 주장하는 사상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사상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고 생각될 때 그 사상가 자체가 되었다는 생각으로 공부하니 구체화 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원문 또는 제시문을 읽을 때 머릿속으로 그 사상가가 직접 말하는 것처럼 읽다보면, 글에 몰입하게 되면서 좀 더 효과적이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은 문장들은 이향복 선생님을 찾아가 질문하며 학습했습니다. 문제를 풀면 풀수록 워낙 내용이 추상적이고 복잡해 어렵고 처음 읽는 듯한 선지나 제시문들이 나오는데, 낯선 듯해도 결국 대부분 기본 개념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념을 활용하는 문제풀이도 중요하지만, 기본 개념에 대한 탄탄한 학습이 더욱 중요하고,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 학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일학원의 주요과목은 한 분이 아닌 여러 선생님께서 수준별 수업으로 시간표가 짜여있어서 저의 실력과 성향에 맞는 선생님을 찾아 수업을 수강할 수 있었고, 좋은 선생님들의 철저히 준비된 수준 높은 수업이 저한테 있어 공부를 꾸준히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탐구과목 이향복 선생님의 파이널 문제풀이 수업은 그동안 학습한 개념의 복습과 올해의 수특, 수완, 평가원 시험까지 분석하여 수능의 트렌드를 느낄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 선뜻 시작조차 하지 못했던 제가 학원의 체계적인 수업을 따라 학원 생활을 하며 초반 공부 습관이 잡히고, 덕분에 끝까지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합격수기를 쓰면서 막상 1년을 되돌아보니, 성적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많이! 남지만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온 나 자신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재수는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할 수 있었던 값진, 금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수능을 도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우연찮게 재수를 하게 된 사람에게, “재수는 실패가 아닌 또 다른 기회이자 시작이므로 너무 우울하게만 지내지 말고 대학에 가겠다는 확실한 의지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입시를 준비하다 보면! 성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차 보기

2026학년도 합/격/수/기



국민대학교 미래융합전공(C) 합격

김희원 (전민고)

예체능을 전공하는 후배들을 위한 입시 전략!

안녕하세요! 저는 제일학원에서 재수와 삼수를 하여 국민대학교 미래 융합 전공(c)에 합격한 김희원입니다. 3번의 미대 입시를 하며 겪었던 경험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합격 수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재수와 삼수를 결심한 계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국민대학교 미대를 목표로 미술 실기와 공부를 병행해 왔습니다. 현역 수능을 볼 당시 저의 수준을 모른 채 맹목적으로 공부를 해왔던 탓에 목표 대학을 쓸 성적에 현저히 모자란 점수를 받았고 그동안 해왔던 실기마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결국 가, 나, 다군 모두 불합격하여 재수를 결심해 제일학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제일학원에 다니며 6, 9모 모두 좋은 성적을 받았고 평소 좋은 성적을 받았기에 수능 성적에 대한 기대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수능 성적은 또다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삼수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삼수를 결심했을 때부터는 과감히 실기의 비율도 줄이고 공부의 방식, 마음가짐을 새롭게 바꾸어 원하는 성적을 받았고 목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과목별 공부법

1. 국어
예체능 입시를 하면서 특히나 중요한 과목이 국어입니다. 저 또한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았고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과목이 국어였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손원천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문학 공부의 기틀을 잡고 크게 점수를 올렸으며 비문학과 언매는 인터넷 강의를 듣되 크게 의존하지는 않았고 기출 분석을 탄탄하게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었습니다.

재수할 때 저는 읽는 속도가 느려 문제를 푸는 시간에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후 삼수를 할 때부턴 빠르게 푸는 것보다 한 지문에서 수능에 도움이 될만한 것들을 모두 얻어 가겠다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렇게 시간보다 정확성에 초점을 맞춰 문제를 풀다 보니 점점 저의 생각 회로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정확도와 시간 모두 개선되어 좋은 점수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기출은 정성을 들여 풀고 학원에서 매달 보는 모의고사, 주마다 나눠주는 콘텐츠는 실력 확인 용도로 가볍고 빠르게 풀며 실전 감각을 익힌 결과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영어

영어의 경우 저는 최대한 많이 풀고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출문제집과 시대인재 콘텐츠를 번갈아 가며 매일 풀었습니다. 학원에서 주는 콘텐츠 중에 영어 콘텐츠의 질이 가장 좋다고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단어 공부도 꼭 매일매일 했습니다. 수업은 학원에서 구교진 선생님 강의를 들으며 단어의 고정된 뜻을 외우는 것을 넘어 단어가 쓰이는 맥락을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3. 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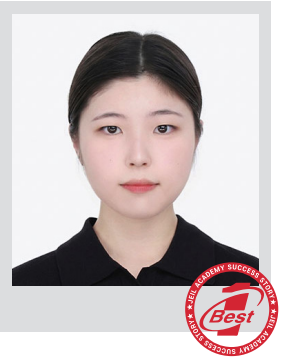
탐구는 미대 성적 반영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어에 자신이 없는 예체능 학생의 경우 탐구 공부를 꼭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탐구를 생활과 윤리, 한국 지리를 선택했습니다. 한지는 1등급이 나왔지만, 생윤의 경우 3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저처럼 아쉬운 결과가 남지 않기 위해 빈틈없이 개념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한 뒤 문제를 풀며 달달 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학원 수업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제일학원의 큰 장점 중의 하나가 사회탐구 과목 선생님들의 강의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선생님들의 수업에 만족했기 때문에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꼭 제일학원의 사회탐구 수업을 꼭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재원생에게 하고 싶은 말

상위권 미대를 목표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대학에서 점점 예체능 학생들에게 높은 성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능에서 높은 성적을 받으면 수능 이후 실기 집중 기간에 실기 준비를 더 마음 편히 할 수 있고 대학의 선택지도 많아지기 때문에 성적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역이나 재수가 아닌 삼수를 하고 있다면 수능 전 실기 수업의 비율을 줄이는 것을 깊이 고민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능까지 긴 시간 동안 생각보다 실기와 공부를 병행하는 것이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치기 때문에 실기에 많이 의존하는 것이 장기적으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 이를 재수에 실패하며 많이 느껴 삼수부터는 과감히 실기의 비율을 줄이고 수능 공부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대 입시는 수능 이후부터가 진짜라는 말이 있을 만큼 저희는 1월까지 남들보다 긴 시간 입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평소 체력 관리도 열심히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멘탈 관리를 잘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잘 관리해서 공부하는 시간엔 빡세게 집중하시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푹 쉬어 체력 안배를 잘하셔야 합니다. 수능 전까지 많은 고비가 있을 텐데 매 순간 일희일비하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꾸준히 공부를 잘 마치시길 바랍니다. 과한 기쁨도 과한 슬픔도 수능이라는 장기전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의 합격자 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모두 원하는 결과 나오길 바라요!!

목차 보기

2026학년도 합/격/수/기



고려대학교 보건환경융합과학부 합격
한양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부 합격
서강대학교 AI기반자유전공학부 합격

박성연 (유성여고)

나만의 꾸준한 복습 루틴을 만들자!

안녕하세요. 저는 제일학원 재수종합반에서 2026학년도 수능을 공부하여 고려대학교 보건환경융합과학부에 합격한 박성연입니다. 1학기에 대학 생활을 하며 느낀 점은 환경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수능 다시 한번 보기로 다짐했지만 마음먹은 대로 공부하기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학기에는 최대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 재수 종합반을 선택했습니다. 쉬는 시간이나 식사시간에도 인터넷과 친목 도모를 할 수 없는 종합반이기에 남은 기간 동안 전력으로 수능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반수를 했기에 남보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조회 전 아침 시간에는 영어단어를 외우며 뇌를 깨웠고, 이후에는 수능 시간표 대로 공부했습니다. 쪽잠을 자면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이 들어 정말 피곤하지 않으면 공부 과목을 바꿔가며 잠을 깼습니다. 공부를 하다 너무 지칠 때도 딴짓은 하지 않고 영단어, 한국사 등 비교적 가벼운 과목을 공부하며 충전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능 시간표대로 공부한 뒤에 시간이 남으면 실전 모의고사 등의 콘텐츠를 풀며 실전 감각을 익혔습니다.
첫 번째 수능에서는 기출 위주로 공부했다면 재수 때는 최대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며 실제 수능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연습했습니다. 일요일은 자율 등원이었지만 하루라도 쉬면 공부 리듬이 깨진다는 느낌이 들어 정말 늦더라도 10시 전까지는 등원했습니다.

국어 과목은 현역 시절 수능 때 가장 발목을 잡았던 과목입니다. 특히 독서 영역이 매우 취약했습니다. 저는 다른 과목보다 국어 과목 공부 방법이 실력 향상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조건 문제 푸는 양을 늘린다고 실력이 느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요령을 피우기에는 수능 날 너무 위험하기에 독서 지문 독해 방법을 아예 바꾸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 어떻게든 문제를 끼워 맞추기 식으로 풀이했던 방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지문에서 이해 안 되는 문장이나 이해 안 되는 선지가 없을 때까지 풀었습니다. 하루 3시간 이상 이 방법으로 국어를 공부하니, 9모 즈음에는 이상적인 시간 내에 독서를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여러 실모를 풀며 독서 영역이 어려울 때, 처음 보는 문법 개념이 나왔을 때 등 수능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대비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보기 문제를 5분 이상 풀어내지 못하면 과감하게 넘기고 다른 문제를 푼다든지 등의 나름의 규칙을 정하며 시험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는 모두 풀도록 연습했습니다. 수능 보기 직전에 이런 규칙들을 다시 보며 마인드 컨트롤을 하였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현역 백분위 86에서 재수 백분위 99의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학 과목은 어려운 문제 위주로 풀이했습니다. 현역 시절에는 수학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다른 과목보다는 안정적인 점수가 나왔지만, 두번째 수능 때는 다른 과목에 신경 쓸 점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최대한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려 했습니다. 쉬운 수준의 문제를 몇백 개씩 풀기보다는 어려운 문제를 오랜 시간 고민하여 푸는 것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자는 그저 문제 푸는 기분만 느끼게 해줄 뿐 기존 실력을 유지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학교를 다녔던 1학기에는 기출을 풀며 감각을 끌어냈고, 9모 이전 2학기에는 15, 22 수준의 어려운 4점 문제들로 이루어진 엔제를 풀었습니다. 9모 이후에는 모의고사 시간에 맞춰 실모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재수 종합반 이산 선생님의 수학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수특, 수완 콘텐츠를 짧은 시간 내에 진행하셔서 빼놓지 않고 연계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홀로 문제 풀이와 해설을 하면 자잘한 문제 스킬이나 개념에서 놓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인데, 재수 종합반 수업을 들으며 이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또한 수학 과목 공부에서 중요한 점 중 하나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의 시간 분배입니다. 저는 미적분을 선택하였고 이전 기출 문제들의 양상을 보며 공통과목보다 미적분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겠다고 판단하여 공통과목, 미적분을 4:6 비율로 공부했습니다. 공부하다 보니 이런 시간 분배를 잊고 특정 과목만 편식하는 것을 느껴 화, 목, 토에는 미적분을 공부하고 남은 요일에는 공통과목을 공부하는 규칙도 세워 공부 시간 비율을 유지했습니다.

과탐은 수능 시간표에서 가장 마지막 시간이기에 가장 마지막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다른 과목과 달리 과탐은 매우 지친 상태로 시험에 응시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도 문제를 기계적으로 풀 수 있도록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실모를 풀 때도 과탐 두 과목 따로따로 풀지 않고 실제 시간표대로 1분 정도의 간격을 두고 풀며 실전 감각을 익혔습니다. 지구과학 1 과목은 실모를 풀 때마다 헷갈렸거나 몰랐던 선지들을 노트에 따로 정리하고 하루 30분 정도 정리 노트를 복습했습니다.

수능 공부를 하며 후반부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재수 종합반의 실전 모의고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개인 독서실에서 실모를 풀면 현장감이 부족해 아쉬웠는데,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강의실에 많은 사람들과 통제된 환경에서 실모를 풀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영어 듣기를 이어폰으로 듣지 않고 교실에서 스피커로 들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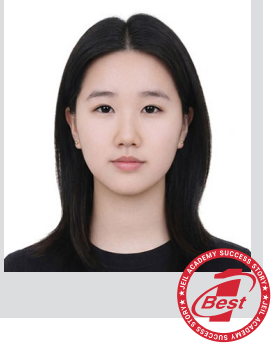
수능 직전에는 그동안 했던 공부들을 복습하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국어는 연계가 다른 과목에 비해 확실하게 체감되기에 막판에는 중요한 수특, 수완 작품의 줄거리, 인물 간 관계 등을 암기했습니다. 시라면 상징어들의 의미와 시대상까지 암기했습니다. 독서와 언매는 공부하면서 떠올렸던 생각들을 정리한 노트를 복습했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로 정리 노트를 보며 복습했고 마지막까지 남은 실모들을 풀며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고 푸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6, 9모의 킬러 문제들도 따로 뽑아 정리했습니다. 기출 복습을 할 때는 단편적인 하나의 해설을 외우기보다는 다양한 해설 법을 접하고 이해했습니다.
영어는 6, 9모 오답들을 복습하며 처음 오답을 고를 때 했던 판단들과 정답 선지의 근거를 비교해가며 수능 영어의 사고방식을 익히려 노력했습니다.
과탐은 작년 수능, 6, 9모 정도의 최근 기출에서 새롭게 등장한 유형의 문제를 뽑아 풀이법과 사고방식을 정리했습니다. 과탐은 시간이 매우 부족한 과목이기에 정석적인 풀이법뿐만 아니라 복잡한 과정을 공식화하여 간단하게 푸는 방법까지 외웠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정리 노트에서 중요한 부분들만 골라 복습했습니다.

수능 공부의 가장 중요한 점은 꾸준함인 것 같습니다. 수능 공부를 하면 가장 장애물이 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입니

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흔들리고 성적이 오르지 않는 모습을 보면 지금 하는 공부가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이때 종합반의 선생님들과 상담하고, 다시 한번 스스로를 믿으며 꾸준함으로 공부하며 그 기간을 이겨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꾸준함과 자기 확신만 있다면 수능 날 그것들이 양분이 되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제일학원 원생분들도 꾸준함을 가지고 수능날까지 정진하시어 좋은 결과를 내기 바라겠습니다.

목차
보기

2026학년도 합/격/수/기



서울교육대학교 합격

박정하 (충남여고)

하루하루를 쌓아보세요!

저는 2024년에 한 대학에 입학해 1학년을 마친 뒤 휴학을 하고 재수를 시작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며 많은 것을 배우기도 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계속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대로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커졌고, 더 늦기 전에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미 한 번 입시를 마친 상황에서 다시 돌아가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인 길을 두고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전하지 않으면 계속 마음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수험생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재수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은 공부 습관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대학 생활로 흐트러졌던 생활 리듬을 바로잡는 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제일학원은 정해진 시간표를 그대로 따르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레벨에 맞는 수업을 선택해 듣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는 만큼 책임도 따랐습니다. 제 실력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필요한 수업을 스스로 선택하는 과정에서 공부에 대한 태도도 함께 달라졌습니다.

1년 동안 수능 공부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 잊어버린 부분이 많아서 수업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혼자 공부했다면 놓쳤을 부분을 선생님들께서 정확히 짚어주셨고, 문제를 바라보는 기준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또 같은 공간에서 공부하던 사람들의 존재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자습실에서 묵묵히 공부하는 분위기 속에서 저 역시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되었고, 하루를 성실히 채우는 습관이 자리 잡았습니다.

과목별 공부와 변화

국어 - 강점을 유지하는 공부

국어는 원래 자신 있는 과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심하지 않기 위해 수업을 통해 지문의 구조를 다시 점검하고, 선택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더욱 분명히 했습니다. 그 결과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어는 실력과 함께 시험장에서의

침착함이 중요한 과목이라고 느꼈습니다. 끝까지 차분하게 읽고 판단하는 연습을 꾸준히 했던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학(미적분 - 기출과 루틴의 힘

수학은 재수 기간 동안 가장 크게 성장한 과목입니다. 개념을 정리한 뒤에는 기출 문제를 반복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아니라, 평가원 기출을 깊이 있게 분석하며 출제 의도와 접근 방식을 익히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수업에서 선생님께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풀이 루틴을 알려주신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문제를 보면 자연스럽게 적용되는 사고 흐름이 생기면서 낯선 문제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출 반복과 루틴 훈련이 쌓이면서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영어 - 기본과 듣기 연습

영어는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일정 시간을 확보해 지문을 반복하며 감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저는 영어 듣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듣기는 난이도가 어렵지 않으면서 다 맞으면 꽤 많은 점수를 얻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듣기 시간을 활용해 뒤에 있는 독해 문제를 먼저 풀면서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듣기를 열심히 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생명과학 - 개념의 완성도와 킬러 대비

생명과학은 개념을 완벽하게 반복하는 데 가장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애매하게 아는 부분이 없도록 여러 번 정리하고 암기했습니다. 기본 개념이 정확해야 문제 풀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 킬러 문제 유형을 반복 연습하며 풀이 스킬을 익혔습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보며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했고, 점점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물리에서 지구과학으로 - 강점을 살린 전략

현역 때는 선택과목에서 물리를 선택했지만 만족할 만큼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민 끝에 지구과학으로 선택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저는 암기력이 비교적 강점이라고 생각했고, 개념을 정확히 정리하고 반복하는 공부 방식이 저와 더 잘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처음 배우는 과목이었기 때문에 기초 개념부터 꼼꼼히 정리했고, 저의 강점인 암기력을 바탕으로 진도를 빠르게 나가며 최대한 많이 반복하며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후에는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며 적용 연습을 했고, 점차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시문 면접 준비 방법

서울교육대학교 정시는 제시문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제시문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짧은 시간에 의견을 구조화하는 연습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제시문이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제시문 내용을 요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질문이 무엇을 묻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요구에 맞지 않는 답을 아무리 잘 말해도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둘째, 의견을 명확하게 정리해 말하는 것입니다. 핵심 문장을 먼저 제시한 뒤 근거를 덧붙이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두고 말하는 연습을 하면 실제 상황에서도 훨씬 침착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제시문 면접은 정답을 맞히는 시험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지를 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말을 더듬거나 당황했어도 심호흡을 하고 다시 평정심을 되찾아 저의 의견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 최종 합격으로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며

재수는 저에게 단순히 한 번 더 도전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 1년 동안 저는 실력뿐 아니라 태도도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알고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 그리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쌓아가는 것. 그 과정이 모여 결국 서울교육대학교 합격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도전을 고민하고 있다면, 완벽한 준비보다 오늘의 한 시간을 성실히 채우는 것부터 시작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 하루들이 쌓여 분명 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목차 보기

2026학년도 합/격/수/기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합격
서강대학교 AI기반자유전공학부 합격

박주환 (보문고)

개념이해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3월부터 제일학원 재수종합반에서 공부하며 고려대 산업경영공학부에 합격한 박주환이라고 합니다. 한 번 더 수능에 도전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합격수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제일학원을 선택하게 된 이유
우선 저는 수능을 3번 보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고3수능이 끝나고 바로 든 생각은 '재수하면 더 잘 갈 것 같은데'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독학재수학원에 들어가서 그저 그런 마음으로 1년간 공부를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확실한 동기부여와 철저한 관리가 없다 보니 수능성적은 고3때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마무리하고 보니 이대로는 정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강한 동기부여와 철저한 관리를 받으면서 1년간 후회 없이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학원은 세밀한 학생관리와 수많은 상위권학생들과 경쟁할 수 있다고 들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2. 제일학원 생활
3월부터 재수종합반에서 공부를 시작하면서는 공부루틴을 확실하게 다시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학원내에서는 학생들이 휴대폰, 친목 등의 공부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못 하도록 담당선생님들이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십니다. 학생들은 정독관 내에 있는 자기 자리에서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 공부하기만 하면 되어서 하루 순공시간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나와 비슷한 성적대의 학생들과 한 공간에서 매월 모의고사를 치는 경험은 강한 동기부여를 주고 수능날의 긴장감을 줄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수업은 학생들의 수준별로 반을 나눠 진행되어서 내가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들을 수 있는 것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수업에서 나눠주는 자료와 시대인재 서바이벌 모의고사는 수능에 나오는 어려운 문제들을 대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3. 과목별 공부법
국어: 저는 재수까지 국어를 제일 못 했기 때문에 국어 공부를 제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국어는 아침에 보는 과목이기 때문에 공부루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학원에 매일 7시 반까지 가서 간단히 공부하면서 머리 좀 풀다가 8시 반부터는 국어공부를 했었습니다. 특히 저는 국어에서 언매를 제일 먼저 풀기 때문에 주에 2~3번씩은 8

시 40분에 시간을 맞춰서 언매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또한 국어는 글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초반에 혼자서 시간제한 없이 글을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수학: 수학은 3~4월에 개념수업을 듣고서는 혼자 문제를 풀며 그 개념들을 적용하는 연습을 쭉 했었습니다. 쉬운 문제부터 시작하며 반복적으로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자신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중간에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들께 물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가 생각 못 했던 풀이들을 친절하고 자세히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에 실력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어: 저는 영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단어를 꾸준히 외웠습니다. 그리고 절대평가라 다른 과목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은 맞지만 언어과목 특성상 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 1시간 정도의 시간을 들여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탐구: 저는 탐구 과목으로 한지, 세지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리쪽에 관심이 많아 지도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기 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탐구과목 선택은 자신의 흥미와 관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관심있는 과목을 골랐던 덕분에 개념강의와 중간중간 개념복습을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사탐은 개념에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개념을 달고 살아야 합니다.

4. 마지막으로

1년간 수능을 공부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나의 미래에 정말 소중한 20대의 1년을 바친다는 것이 지금 당장은 불안하고 막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이른 아침에 학원에 등원하고, 오자마자 국어 공부를 시작하며, 똑같은 시간에 밥을 먹으며 수업을 듣고 밤 늦게까지 자습을 하다 집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꾸준히 쌓인 노력들은 여러분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공부하다 불안하고 지치는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해온 노력들로 이루게 될 대학생활을 상상하며 버텨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을 이렇게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1년간 참고 잘 버티다 보면 원하시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면 쉬어가도 됩니다. 슬프면 마음껏 울어도 됩니다. 그러나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결코 안됩니다. 여러분의 포기하지 않을 1년을 응원하겠습니다!

목차 보기

2026학년도 합/격/수/기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합격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영화) 합격

박채영 (유성여고)

균형잡힌 공부습관으로 원하는 대학 가자!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2월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제일학원 재수종합반 32반에서 공부한 박채영입니다. 제가 이 학원에서 얻은 것들이 이 글을 읽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합격수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재수를 하게 된 계기

저는 현역 시절 학교와 정시 공부를 병행하느라 공부량이 현저히 부족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 운명이 정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수시를 좋아하는 과목만 챙겼는데, 고3 때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다는 것을 알았다면 겨울방학에 더 빡세게 했을 것 같네요! 하하) 학기 중에 선생님들께서 정시러라고 자습을 허용해 주시기도 했지만, 선생님께서 수업하시는 소리로 인해 완전히 몰두해서 공부를 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습을 절대 허용해 주지 않으시는 선생님들 수업 시간엔 몰래 인강 듣는 것 말고는 할 수 없었기에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25수능 때 원하는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재수를 결심하였습니다.

제일학원을 선택하게 된 계기

먼저 통학버스가 운영한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둔산동까지 3~40분이 걸리기도 하고 버스 오는 시간을 고려하는 것도 스트레스였을 텐데, 통학버스로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승차 장소에 가면 20분만에 학원에 도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통학버스 덕분에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고 시간적 여유도 확보할 수 있었어요!

제일학원의 장점

(1) 제가 제일학원 재수종합반을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생활패턴 형성' 때문이었습니다. 정해진 시간까지 등교해서 아침 조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늦잠자지 않고 정시에 등교하려 노력했습니다. 반강제로 아침일찍 등원하다 보니 일찍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공부하기 좋은 컨디션을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2) 두 번째 이유는 '철저한 관리'입니다. 담임 선생님과 조교분들이 주기적으로 순찰을 도셔서 게으름을 덜 피우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졸고 있으면 깨워 주시고 스탠딩 책상에서 공부해 보는 건 어떻겠냐 권해 주셔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모의고사 역체감

사실 저는 제일학원에서 더프리미엄 모의고사를 볼 때 책상도 너무 빽빽하고 학생이 많아서 불편하게 모의고사를 봐서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이 오히려 수능 때 역체감이 되어서 좋았습니다.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볼 때에는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사람이 있어서 다리 떠는 것 등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많았는데, 수능장은 타 학생들과 거리가 있기에 상대적으로 쾌적해서 수능 때 오히려 집중하기 좋았습니다. 초반엔 그냥 더프 모의고사를 보지 말까 싶다가 6,9모를 학교에서 치뤄 보며 역체감이 오히려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또한 막판에는 좀 불편한 환경에서도 집중할 수 있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기타

(1) 겉옷은 필수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실내 온도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적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겉옷 안 가져 왔다가 감기에 걸리면 큰 일이니 겉옷은 정독관에 한 벌 정도 가져다 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2) 점심 시간에 인강을 보는 것도 좋아요! 저는 탐구나 한국사 인강을 들었는데 점심 시간에 인강을 들으니, 원래 인강을 들을 계획이었던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할 수 있어서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3) 재수종합반에서 개설되는 이찬우 선생님의 한국사 강의 정말 추천합니다!! 진짜 잘 가르치시고 무엇보다 재밌습니다. 역사를 배경-내용-결과로 정리해서 설명해 주셔서 머리에 잘 들어오고 수업이 진짜 재밌습니다. 학생들 반응도 엄청 좋았고 질문도 잘 받아주셔서 한국사 점수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들으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4) 1층 데스크에서 근무하시는 원장 선생님, 부원장 선생님, 실장님들이 엄청 친절하시고 고민도 잘 들어주시니까 수험 생활하다 고민이 생기면 선생님들과 대화해 보세요!(점심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요) 선생님들께서 해 주신 말들 중에 공부의 원동력으로 삼았던 말들이 꽤 되어서 좋았어요.

목차 보기

2026학년도 합/격/수/기



중앙대학교 첨단소재공학과 합격

유준혁 (서산서일고)

대나무는 마디가 있어야 더 높이 자란다

1. 재수의 시작

합격자 명단에서 제 수험번호를 확인하던 그 찰나의 정적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처음 공부를 결심했을 때, 제 주변엔 응원보다 우려의 시선이 더 많았습니다. "그게 쉬운 줄 아니?", "지금 시작해서 언제 끝내려고?" 하는 말들은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을 만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균열을 불안이 아닌, 새로운 빛이 들어오는 통로로 삼기로 했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머리는 아니었지만, 남들보다 조금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엉덩이의 힘'을 믿고 이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2. 학습법

공부의 양에 압도당해 허우적거리던 시절, 제가 깨달은 것은 '아는 것'과 '안다고 착각하는 것'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메타인지 학습법: 단순히 인강을 듣고 책을 읽는 시간은 '내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30분 동안, 오늘 배운 핵심 키워드 5가지를 백지에 적고 누군가에게 설명하듯 입으로 내뱉었습니다. 설명이 막히는 부분이 곧 제가 모르는 부분이었고, 다음 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며 빈틈을 메워나갔습니다.

회독법: 1회 독 때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주력했고, 3회 독부터는 제가 자주 틀리는 오답의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출제자가 왜 이 보기를 오답으로 만들었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려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자 어느 순간 문제의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 일상생활

수험 생활에서 가장 큰 적은 '불확실성'입니다. 저는 이 불확실성을 통제하기 위해 일상을 단 순화했습니다.

감정의 동요 최소화: 공부가 잘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버페이스하지 않았고, 하기 싫은 날이라고 해서 책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좋든 나쁘든 정해진 시간에 책상에 앉는 행위 자체가 합격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티켓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만의 휴식 매뉴얼: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는 억지로 펜을 붙잡기보다 한 시간 정도 조용히 산책을 하며 뇌를 쉬게 해주었습니다. 죄책감 없는 휴식은 다음 날 다시 달릴 수 있는 소중한 연료가 되었습니다.

4. 슬럼프

공부를 시작한 지 중반 정도 되었을 때, 성적이 정체되는 소위 '정체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해도 점수는 오르지 않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를 잡아준 문장은 "대나무는 마디가 있어야 더 높이 자랄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지금의 고통은 내가 더 단단해지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눈앞의 결과가 아닌,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진 오늘의 나 자신에게 집중하며 묵묵히 그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5. 마지막

시험 한 달 전, 저는 모든 교재를 한 권으로 집약하는 '단권화'를 완성했습니다. 방대한 양을 하루 만에 훑어볼 수 있게 되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실전처럼 시간을 재고 모의고사를 풀며,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넘어가는 배짱도 길렀습니다. 시험 당일, 저는 제가 정리한 단권화 노트를 보며 '내가 모르는 건 남들도 모른다'는 최면을 걸었습니다. 떨림은 확신으로 바뀌었고, 결국 마지막 종소리가 울릴 때 저는 후회 없는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6. 2027수능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합격은 결코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버텼다면, 모르는 것을 외면하지 않고 한 번 더 들여다봤다면 여러분은 이미 합격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책상 앞에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계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합격 수기가 여러분의 길고 고된 여정에 따뜻한 등불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차 보기

2026학년도 합/격/수/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계공학과 합격

이민기 (대성고)

매일의 노력이 모여 하나로!

안녕하세요. 제일학원에서 2026 수능을 준비한 이민기입니다. 제가 재수를 하면서 알게 된 공부 방법과 시행착오들을 소개해 여러분의 공부에 도움이 되고자 합격수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재수를 결심하게 된 계기

고등학교 때 저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학생이었습니다. 친구들이 공부하면 공부하고, 친구들이 놀면 놀고, 수행평가 제출 날이 되면 대충 점수만 받기 위해 급하게 제출했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3학년이 되자 수시로는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할 거 같아 정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학습 루틴을 지키지 못했고 결국 재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수에서의 마음가짐

재수는 1년을 더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6월 모의고사까지 3개월, 또 9월 모의고사까지 3개월, 9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수능까지 2달 조금 넘는 기간밖에 남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다고 생각해 어려워하던 개념을 계속 미루다 보면 결국 해야 할 때 적절한 공부를 하지 못합니다. 저 또한 미적분에서 어려워하던 단원을 계속 미뤘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6월 모의고사에서 그 미루었던 단원들이 발목을 잡는 것을 보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후 며칠간 약점이라고 생각이 든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했고, 9월 모의고사에서는 해당 단원 덕분에 원하는 점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수능날의 긴장감

이 글을 읽는 수험생 여러분은 대부분 수능 시험장의 분위기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평소엔 쉽게 답을 내릴 수 있는 문제도 수능날엔 넘기지 못했던 경험도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능 시험장에서는 누구나 떱니다. 저는 평소 실전 모의고사를 풀

때 입었던 옷, 먹었던 간식, 심지어 쉬는 시간에 볼 요약 노트까지 미리 준비해 연습했습니다. 덕분에 수능 당일, 시험지 이외에 다른 곳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답노트

재수종합반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매달 더프와 같은 실전 모의고사를 응시하게 되고 또 서바이벌 컨텐츠도 많이 풀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N제들을 풀 때 틀린 문제들을 그냥 답만 확인하고 넘기면 나중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마주하게 되더라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수를 시작하면서 오답노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쏟아지는 서바이벌과 더프 콘텐츠의 양이 워낙 많다 보니 모든 문제를 기록하기보다는 효율적인 전략을 세웠습니다. 계산 실수 같은 단순 오답은 배제하고, 생소한 아이디어나 반복해서 틀리는 개념 위주로 정리하는 식입니다. 특히 오답 노트에 완벽한 풀이를 적기보다, 이 단서를 보고 이 개념을 떠올렸어야 한다는 행동 강령을 적어두니 실전에서 막혔을 때의 사고 과정을 교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슬럼프 극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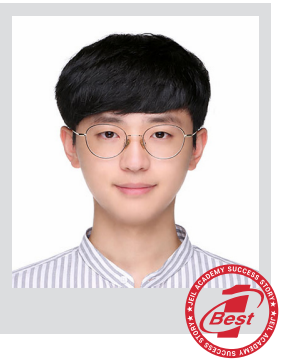
재수를 하다 보면 자주 슬럼프를 경험하시게 될 텐데, 특히 대학을 간 친구들이 재미있게 대학교 다니는 사진을 볼 때, 10시 반에 공부를 끝내고 나왔을 때 술 마시고 있는 친구들의 사진을 볼 때, 열심히 공부했는데 모의고사에서는 성적이 안 나올 때 등 정말 자주 힘든 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친구들의 대학 생활이 부러운 건 당연한 감정이지만, 그 부러움 때문에 오늘 해야 할 공부를 망치는 건 결국 저만 손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흔들리는 날에는 아예 휴대폰을 꺼두고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만 집중했습니다. 지금 당장 성적이 안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는 투입한 시간만큼 결과가 바로 나타나는 정비례 그래프가 아니라,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야 성적이 오르는 계단식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슬럼프가 왔을 때 대단한 극복 방법을 찾기보다는 그냥 '지금은 좀 힘든 시기인가 보다' 하고 덤덤하게 받아들이며 평소처럼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결국 합격은 기분 좋을 때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분이 최악일 때도 루틴을 지키는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수능은 당일의 운으로 한 번에 결정되는 시험이 아닌 매일의 노력이 모여 성적을 결정하는 시험입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불안하더라도 당장 눈앞에 있는 해야 할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수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줄어들고 수능 날 최고의 점수를 받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글을 읽는 모두가 내년 봄, 원하던 캠퍼스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목차 보기

2026학년도 합/격/수/기



단국대학교 약학과 합격
건국대학교 의예과 합격
충북대학교 의예과 합격

이승환 (공주사대부고)

찬란하게 빛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하여!

안녕하세요. 우선선발반부터 재수종합반까지, 2025년 한 해를 온전히 제일학원에서 보낸 이승환입니다. 길고도 길었던 입시 생활에 마침표를 찍으며,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합격 수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힘들었던 순간도 많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결과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수험 생활에 작은 용기와 방향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입시가 길어졌던 이유

저는 21살에 공주교육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며 동기들과 소중한 추억을 쌓았고, 초등학교 실습 또한 설레는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귀여웠고,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시간은 분명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길이 과연 나에게 맞는 길일까?'라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즐겁기는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명하기 힘든 불안감이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과였기에 메디컬 계열에 대한 미련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임용고시 준비 과정 또한 저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얕으면서도 방대한 내용을 암기 위주로 공부해야 하는 방식이 제 성향과 맞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민 끝에,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25살의 나이로 다시 한 번 수능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공부할 장소를 찾던 중 제일학원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과 학습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고, 특히 시대인재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일학원에서 다시 한 번 제 한계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2. 국어

이번 수능에서 가장 아쉬움이 남는 과목은 국어였습니다. 저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문제를 틀리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언어와 매체는 단기간에 성적이 오르기 어려운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쉬고 내일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미루다 보니, 결국 파이널 시즌까지 부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언어와 매체는 하기 싫더라도 꾸준히 손을 대야 하는 영역입니다. 파이널 시즌에는 최소 하루 한 세트라도 반드시 풀어보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합니다.
독서와 문학 역시 양치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인강을 듣는 것만으로는 국어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기 어렵습니다. 인강은 방향을 잡아주는 도구일 뿐, 실제로 글을 읽고 이해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여러분 스스로 쌓아야 합니다. 직접 고민하고 틀려보는 과정이 결국 실력을 만듭니다.

3. 수학

저는 현역 수능에서 수학 3등급을 받았습니다. 2026 수능을 준비하기 전에 제 문제점을 냉정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조언과 주변 의대를 진학한 친구들의 경험담을 들으며 깨달은 것은, 절대적인 문제 풀이량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기출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출 문제는 분명 중요하지만, 결국은 퀄리티 좋은 N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출 분석이 기본이라면, 그 이후에는 더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수능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어디서 본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문제'를 풀어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며 수학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감각을 키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중의 여러 N제를 풀어보며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 자체가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4. 영어

이번 수능 영어에서는 1등급이라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영어는 늘 저에게 계륵같은 과목이었습니다. 2등급은 안정적으로 나오지만, 1등급을 받기에는 늘 한 끗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메디컬 진학을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영어 1등급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저는 수학과 달리 국어와 영어는 기출 문제를 반복하며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설 문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기출 지문 하나하나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지문이 완벽히 이해될 때까지 모르는 단어를 정리하고, 문장을 직접 해석하며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단어 암기는 정말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단어를 모르면 독해는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2026 수능 영어 1등급 비율이 낮았던 만큼 2027 수능은 다소 수월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방심하지 말고, 시간을 충분히 투자해 꼭 1등급을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5. 탐구

탐구 과목 역시 수학과 마찬가지로 많은 문제를 풀며 감각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제일학원에서 제공하는 시대인재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실력을 점검했고,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저만의 풀이 전략을 정립해 나갔습니다.
파이널 시즌이 다가올수록 국·수·영에 집중하게 되어 탐구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능에서는 탐구가 당락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파이널일수록 탐구에 더욱 집중해 감각을 최대한 끌어올리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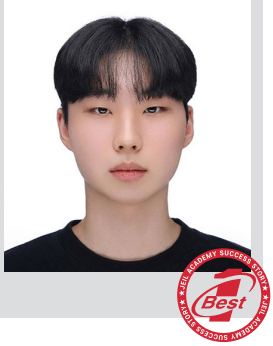
글을 마치며

제일학원의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철저한 관리 시스템 덕분에 저는 마침내 목표로 하던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합

격 수기를 통해 제일학원의 모든 선생님들과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끝이 잘 보이지 않는 입시의 터널 속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간다면, 터널 끝에 환한 출구가 보일 것입니다.
앞으로 찬란하게 빛날 여러분의 청춘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목차 보기

2026학년도 합/격/수/기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합격
경희대학교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합격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합격

이준희 (검정고시)

너는 지금 작지만 너는 이미 크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게이머를 도전하다가 그만두고 18살에 재수를 하게 된 이준희입니다.수능에 대해 1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해 본 만큼 특히 노베이스 분들께 도움이 되기 바라며 합격수기를 쓰게 됐습니다.

1. 초반 (6월 모의고사 이전)
개념을 쌓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때 개념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실력이 어느 수준에서 멈추거나 개념을 다시 공부해야 합니다.
앞으로 1년동안 쓸 토대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한번 공부할 때 정말 꼼꼼히 해야합니다.

특히 국어는 개념이 중요하지 않다는 오해를 많이 받는 과목이지만 토대가 탄탄하지 않으면 결국 일정 수준의 점수에서 벽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의 경우 개념의 나비효과 강의를 통해 개념을 확실하게 하고 개념이 완성되었다는 판단이 든 후에 기출을 학습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문제의 선지보다는 지문 자체를 읽고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수학에서 개념이 중요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개념이 없이는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인데, 간혹 문제를 어느 정도 푸는 수준이 되면 개념을 등한시하게 되는경우가 있습니다. 개념을 이해한다는 정도를 잘못 알게되면 공식 암기에 그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해당 공식과 개념의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나중에 문제를 풀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사탐은 다회독 하려는 마음가짐으로 개념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다회독 할 시간도 부족할 뿐더러 첫 회독에 다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 집중하지 않게 됩니다.따라서 한 번만에 끝낸다는 생각으로 개념을 공부한 뒤 수시로 개념을 다시 복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생활에 몸을 적응시켜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처음 겪는 생활 패턴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기도 하지만 신체적으로도 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이 때 조퇴하거나 결석하여 컨디션을 관리하기 보다는 어떻게든 버텨서 적응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적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수면 시간의 확보입니다. 보상심리로 인해 자기 전에 핸드폰을 할 경우 6시간 이상의 수면 시간이 확보되기 어려운데,그럴 경우 집중이 안되고 멍해지는 상태가 되므로 핸드폰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선택 과목은 이 시기에 신중히 결정하여 후에 바꿀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중반 (6월 모의고사~9월 모의고사)
개념이 어느정도 확보된 후에는 문제풀이를 통해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개념을 탄탄히 했다면 이 때 부터는 한 문제에 투자하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국어와 수학 모두 문제를 풀다가 막혔을 때 해설지를 보기보단 깊게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사고력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풀이 과정을 눈으로 읽는 것은 내 실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다는 착각만 심어줄 뿐입니다.
특히 수학은 한 문제에 2~3 시간씩 매달려보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국어는 정확한 근거 없이 끌리는 선택지를 골라서 맞춘 경우 반드시 그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 과정에서 스스로 길을 찾아내는 경험이 실제 수능장에서 발휘되는 진짜 실력이 됩니다. 그러나 사탐은 문제가 막히는 것은 개념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잘못 판단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오랜 시간 고민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중반기는 성적이 폭발적으로 오르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는 정체기가 오기 쉬운 시기입니다. 저 역시 매일 같은 루틴으로 공부하지만 점수는 그대로인 것 같아 불안할 때가 많았습니다.하지만 이때가 바로 실력이 응축되는 시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슬슬 친구가 생기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관계가 학업에 우선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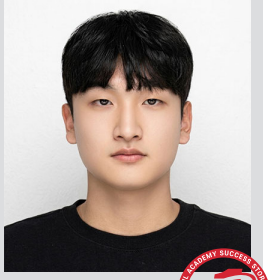
3. 후반(9월 모의고사 이후)

이 시기에는 새로운 지식을 확장하기보다 자신이 가진 것을 가다듬는 기간입니다.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자신을 믿고 루틴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전 모의고사를 가장 많이 풀어 실전 감각을 익혀야 하는 시기이기도 한데, 제일학원에서 배부하는 시대인재 컨텐츠를 통해 이를 체화할 수 있습니다.

4. 글을 마무리하며...
수능 공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힘들이지 않거나 괴롭지 않고 점수를 올리는 방법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지엽적인 스킬과 같은 편법에 매몰되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시기별 루틴을 지키며 끝까지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보기

2026학년도 합/격/수/기



단국대학교 치의예과 합격
단국대학교 의예과 합격
대전대학교 한의예과 합격

임건희 (대신고)

작은 노력이 모여 큰 성취를!

안녕하세요. 제일학원 재수종합반에서 4월부터 공부를 시작한 임건희입니다.
2025년 제일학원에서 공부를 시작하며 좋은 결과를 얻었고, 많은 것들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공부하며 쌓은 경험과 공부법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합격수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1. 과목별 공부법

(1) 국어(언어와 매체)

두 번의 수능을 치르며 제가 느끼기에 국어과목은 멘탈 관리도 독해실력 못지않은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능 1교시 국어는 첫 시험으로 수능 전체 시험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목이고, 충분한 점검과 대비를 하여도 수능장에서 보는 국어 시험의 압박감과 불안감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의고사를 풀 때나 국어공부를 할 때에 수능장에서의 상황을 그려보고, 실전이었다면 어떻게 풀었을까 하는 고민을 통해 멘탈 관리를 하고 실전감각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국어 성적을 올리기 위해 중요한 점은 '꾸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수능 한두 달 전까지는 매일 아침 독서 3지문, 문학 2지문을 풀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독서와 문학의 경우에는 기출 지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제게 맞는 기출공부법을 찾아 충분히 고민하고 많은 시간을 써서 독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언어와 매체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개념은 잡혀있었던 상태였기에 'ebs교재와 n제'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접하며 실력을 키우려 하였습니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관리하고 독해 실력을 향상시킨 후, 수능 한 달 정도 전부터는 다양한 모의고사를 반복적으로 풀며 실전감각을 올리려 하였습니다. 모의고사를 풀 때는 독서론, 언어와매체(20분)-독서(30분)-문학(25분) 순으로 풀었는데, 자신에게 맞는 순서와 시간분배를 찾아 모의고사를 풀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2) 수학(미적분)

수학 또한 개념과 기출학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능 수학은 흔들리지 않는 개념공부를 기반으로 푸는 과목이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시작한 뒤 처음에는 수1,수2,미적 개념공부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꼼꼼히 복습하였습니다.
개념공부를 끝마친 후에는, 시중에 있는 수학 기출문제집을 통해, 기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배웠던 개념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문제에 이런 표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등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풀지 정리하는 활동을 통해 기출분석을 하였습니다.
충분한 개념공부와 기출학습 후에는, 여러 문제집과 모의고사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려고 하였습니다. 수학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여러 유형을 접해보려고 노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학실력의 향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3) 영어

영어는 비교적 자신 있는 과목이었기에, 공부를 하면서 많은 시간을 쏟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6학년도 수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어 과목이 난이도 높게 나올 수도 있기에, 수능에서 영어 과목에 발목을 잡힐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틈틈이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점심을 먹고 남은 점심시간에 영어기출이나 ebs교재에 수록된 문제를 풀어 감을 유지하려 하였습니다.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여 적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안정적인 영어실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4) 과학탐구(화학1, 생명과학1)
저는 공부를 하면서 가장 성적이 안 오르고, 힘들었던 과목이 탐구과목이었습니다. 탐구과목 특성상 시간압박이 매우 심하고, 많은 공부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충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학1
화학1 과목은 다른 탐구 과목들보다도 특히 시간압박이 심하기에, 화학1 문제를 풀 때에는 '더 간결한 풀이와 나만의 풀이법'을 항상 생각하며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 문제집과 컨텐츠들을 풀어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접해보며 계산에 익숙해지고, 시간단축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과학1
생명과학의 경우도 매우 어렵게 출제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유전과 유전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두 부분 모두 꼼꼼히 공부하여 정확한 개념이나 풀이법을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유전 부분에서는 유전 부분보다 쉬운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어 빠른 시간 안에 풀 수 있도록 연습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세하고 정확한 개념공부로 막힘없이 문제를 풀고,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며 풀이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전...수능공부를 하면서 한번쯤은 어렵다고 들어보셨을 텐데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비유전 파트를 열심히 공부하고 난 뒤에는 유전공부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전 파트를 공부할 때에는, 단순히 문제를 풀기보다는 비슷한 유형끼리 분류하여 이러한 유형과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풀어야할지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신만의 해결책을 떠올려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강의와 컨텐츠를 통해 다양한 풀이를 접해보며 낯선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글을 마치며

2025년 1년 동안 공부를 하며 공부 외적으로도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했고, 이종혁 선생님을 비롯한 제일학원 선생님들의 응원, 편한 시설과 여러 교재들을 바탕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같은 반 제일학원생분들과 함께 공부하다보니 어느새 1년이 지나 기쁜 마음으로 2026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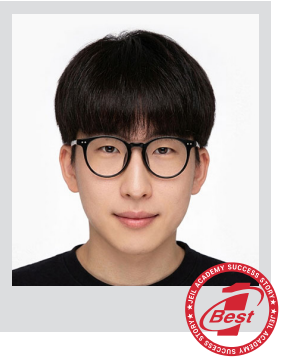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마음가짐과 꾸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 공부를 하고, 밤늦게 잠드는 반복적인 생활 속에서 분명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1년 동안 목표를 향해 열정적으로 공부해 본 경험은 기억에 깊게 남아 좋은 밑거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일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결승선을 웃으며 통과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목차 보기

2026학년도 합/격/수/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신소재공학과 합격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합격

정용재 (용산고)

끝까지 생각해보고 고민을 해보는 끈기가 중요하다!

안녕하세요, 제일학원 32반에서 공부한 정용재 라고 합니다. 저의 2026년도 합격수기로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유의미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재수를 시작하며 제일학원에 처음으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재수 시작하기 전 고등학교 때는 3학년이 되어서야 제대로 수능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 전에는 내신공부에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하지만 2학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의 내신 점수가 저의 인서울이라는 목표와는 다르게 낮게 나와서 이때부터 정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부터는 내신과 함께 수능공부도 같이 병행했습니다. 하지만 내신도 잘 안나오는데 수능이라고 잘 나오겠습니까.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
히 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사실 그전에 봤던 모의고사를 괜찮게 봤던 탓에 수시를 쓰지 않고 정시에만 치중했던 저는 등 떠밀리듯 재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저와 같은 이유로 재수를 시작하는 분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처음에 다닐 학원으로 제일학원을 선택한 이유는 사실 큰 이유는 없었습니다. 대전에서 가장 유명한 대형 재수학원이기도 했고, 타지로 가기엔 타지에서 잘 해낼 자신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수를 시작하고 학원을 다니면서 제일학원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첫번째로 대전에서 등하원을 하며 가족들과 생활 하는 것이 생각보다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이죠.
두 번째로는 매달 보는 모의고사입니다. 이를 통해 실전감각을 높여주는 것과 동시에 우수 성적자에게 장학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매번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이번 장학은 내가 타서 저기에 이름 걸려보고 싶다라는 동기부여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동기부여가 공부를 하는 동력이 되어 재수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업을 유동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과목은 조금 낮은 반에 가서 수업을 들으며 자신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자신이 자신있어하고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은 높은 반에 들어가 수업을 들으며 장점을 강화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편하게 정독실에서 자습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관리를 통해 자습실

과 복도에서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분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더욱 집중이 잘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다양한 콘텐츠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학원에서 시대인재 콘텐츠를 매주 제공해줍니다. 매주 콘텐츠를 받으면 이건 무조건 이번주 안에 끝내고 싶은 욕망들이 생기는데 그런 욕망들이 의무감으로 바뀌게 되며 공부를 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모르는 것이 생겨도 선생님께서 수업시간에 다루기도 하시고 아니면 교무실에 계신 선생님께 여쭤보면 돼서 쉽게 해결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수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몸에 익어있는 습관은 바꾸기 어렵다는 것 입니다. 저는 평소에 누가 깨우지 않으면 12시가 넘어서 일어날 정도로 잠이 많았고, 평소 쉴 때는 전부 핸드폰을 보면서 시간을 보낼 정도로 핸드폰 보는 시간이 남들 보다 많은 사람입니다. 이것들이 전부 재수생활을 하는데 악영향을 끼치더라구요. 학원에서 끝나고 돌아오면 피곤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보상심리로 또 핸드폰을 하고 싶은 마음에 핸드폰을 보게 되고 핸드폰을 보다보니 늦은 시간에 잠을 자게 되고, 그로 인해 학원에서 졸거나 자습할 때 집중도 못하여 공부의 질 이 좋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는 날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날 너무 자신이 한심해 보이는 순간이 왔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재수를 시작했나, 재수를 시작할 때 가졌던 마음가짐은 어디가고 이렇게 시간을 버리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안 좋은 습관들을 버리자고 다짐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 유혹을 참아내기라는 것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점차 몸에 익히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학원에서 쏟아지던 졸음은 줄어들고 스스로 도움이 되고 효율적으로 자습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때마다 알게 모르게 스스로에게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기간에 성적이 안 올라도 너무 상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적이라는 것이 계속 자신이 열심히 해도 꾸준히 눈에 보이게 쭉쭉 오르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전혀 아닌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열심히 계속 공부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느는 경우가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특히 수학에서 평소에 눈에 보이지 않던게 잘 보이게 되고 술술 풀리는 느낌을 받은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으로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모의고사를 잘 보면 신나고 잘 못 보면 물론 화가 나고 억울하기도 한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잘 봤다면 그 기쁨은 적어도 그날 이내로 끝내고 자만하지 않고 하던대로 꾸준히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 못 봤다면 그걸 기회로 삼아 자신이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설 모의고사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실전감각을 늘리고 경험치를 쌓는 것의 일부 일뿐이지 너무 성적에 신경치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사설 모의고사에서는 진짜 단 한번도 좋은 성적을 받기는커녕 이보다 최악이 없는 수준이었고, 69모의고사에서 보다도 수능에서가 가장 잘나온 경우입니다. 그러니 너무 모의고사 점수에 상관 마시고 자신이 무조건 수능에서 지금까지 봤던 시험중에서 가장 잘 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습은 중요합니다. 복습은 물론 어느 과목에서든지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암기과목에서 복습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탐구에서 지구과학을 선택했는데, 항상 3등급 언저리 였습니다. 저는 수능 일주일 전부터 지금까지 풀었던 모든 지구과학 문제를 정리하고 틀렸던 문제는 분석하여 내가 뭘 몰라서 틀렸는지 왜 틀렸는지를 정리해서 노트에 정리했고 그걸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 덕분에 이번에 봤던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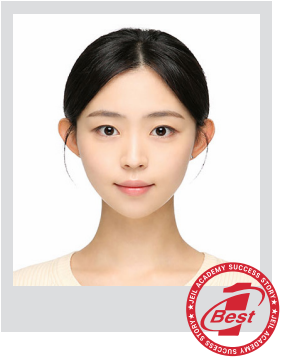
네 번로는 끈기가 중요합니다. 비록 어려운 문제더라도 끝까지 생각해보고 끝에 끝까지 고민을 해보는 끈기는 중요합니다. 충분히 고민과 생각을 많이 해보고 해설을 찾아보는 것과 그런 것 없이 막힌다고 바로 찾아보는 것은 진짜 확실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수학은 고민을 정말 많이 해봐야 실력이 는다고 생각하고 해설을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자기 걸로 만드는 작

업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n수의 n을 2로 마무리하고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고민과 힘듦이 있었고 어느 정도의 아쉬움도 남지만 결국 제 힘으로 수능점수를 올려서 대학을 갔다는 것에 대해 뿌듯함도 있습니다. 무언가 하나에 정말 열심히 했던 경험이 앞으로 저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수를 하다가 힘드시면 담임선생님을 찾아가세요. 도움을 많이 드릴겁니다:)
제일학원에서 공부하시면서 좋은 성적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목차 보기

2026학년도 합/격/수/기



원광대학교 치의예과 합격

정채희 (호수돈여고)

꾸준하게 지문을 읽는 습관, 곧 행복의 시작!

안녕하세요. 2025년 제일학원에서 공부하여 원광대학교 치의예과에 합격하게 된 정채희입니다.
수능을 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1월에 글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수할 때의 저의 모습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네요. 그 당시 힘들어했던 저 자신에 대한 안쓰러움, 미숙했던 모습들에 대한 책망, 그럼에도 결국 해냈다는 대견함이 뒤섞여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모든 과정을 겪게 될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저의 경험을 글로 남겨보려 합니다.

과목별 공부법

1. 국어
제가 가장 자신이 있었던 과목은 국어였기 때문에 공부 비중을 크게 두진 않았지만, 꾸준히 글을 읽으며 감을 잃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실제로 재수 중간에 국어 성적에 대한 자만으로 공부를 소홀히 하여 6월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급락한 적이 있는데, 이는 '꾸준함'의 중요성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문학은 연계 공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수능특강, 수능완성을 다 푼 후에는 문학 사용설명서를 구입하여 자투리 시간에 틈틈이 책을 읽는 것처럼 읽었습니다. 부담 없이 내용을 익힌다는 느낌으로 3회독 이상 반복하였습니다.
독서에서는 현역 때 특히 취약했던 경제 지문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현역 때에는 단순히 경제 지문을 많이 읽어보는 방식을 선택했는데, 이런 방식은 내용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그래프에 적용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인강을 들으며 경제 지문 속 기본 개념과 전반적인 흐름, 상관관계를 이해하였습니다. 개념을 먼저 잡고 가니 이후 개별적인 문제를 푸는 게 한층 수월해졌습니다.

2. 수학
현역 시절 저에게는 수학이 가장 취약 과목이었는데, 절대적인 공부 시간의 부족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매일 하루의 절반 이상을 수학에 투자하려 하였습니다. 저는 수학 성적 향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스스로 고민해보

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넘어가고 답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선 최소 30분은 생각해 본 다음, 그럼에도 안 풀리는 문제들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고민해보며 해결해 나갔습니다. 저는 이 산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는데, 과제 중 안 풀리는 문제들은 수업에 들어가기 전 최소 세 번씩은 풀어보고 수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업 중 선생님의 해설과 저의 풀이 과정을 비교하며, 문제를 풀지 못했던 원인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3. 영어

영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어 암기입니다. 저는 하루에 최소 1시간 반은 영어 단어 암기에 투자하였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단어만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와 관련된 동의어, 반의어까지 연결해 암기하며 어휘력을 풍부히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문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를 최소화할 수 있었고, 글을 보다 매끄럽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어와 마찬가지로 영어도 감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프 모의고사 2개를 꾸준하게 보았습니다. 학원에서 매달 보는 모의고사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지문 읽기 순서를 알아가는 것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어보며 순서를 정해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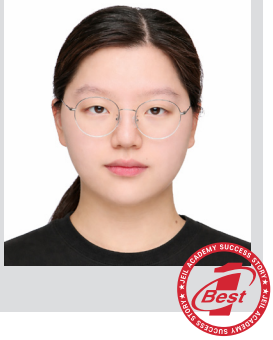
글을 마치며

제가 대학에 간 친구들의 일상을 부러워하며 끊임없이 했던 생각은, '나도 대학에 가면 행복해질 수 있겠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저에게 동기를 부여해주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저의 행복을 미래에만 있다고 가정하며 현재의 저는 불행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자각하게 된 계기는, 당시 읽었던 니체의 책에 나온 "행복은 순간에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재수를 하거나 그 이상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께 이 말은 이해되지 않거나, 어쩌면 기만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아주 사소한 점이라도 행복이라 느끼고 살아가는 것은 매일을 버텨내는 것에 꽤나 큰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맛있는 간식을 먹어서 행복했다.'처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역경은 계속해서 있을 것이고, 그때마다 행복을 그 역경이 끝나는 시점에 둔다면, 우리는 삶의 많은 부분을 불행 속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하루에 하나씩 사소한 행복을 찾아가며 버텨보시길 바랍니다.

힘든 시기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며, 그 끝에서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를 마주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목차 보기

2026학년도 합/격/수/기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합격
서울시립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합격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합격

정혜민 (반석고)

그 누구보다도 우직하고 당당하게!

안녕하세요. 제일학원 수강생 여러분. 저는 제일학원 31반에서 공부했던 정혜민입니다.
우선 재수를 결심하기까지의 고민과 망설임이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결정을 내리고도 '내 결정이 맞았다' 고 확신을 가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려운 도전을 시작하신 여러분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제 경험에 비추어 남기는 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제일학원에 처음 등원하던 날입니다. '몇 달 쉰 것뿐인데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지만, 11월 이후의 공백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현역 때 그렇게 붙들고 있던 개념과 문제 풀이 감각은 이미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막힘없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저만 제자리에서 빙빙 돌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에 마음이 자꾸만 조급해졌고, 그럴수록 글자는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규반에 들어서고 조금씩 제 페이스를 찾으면서, 제가 들였던 공은 느릴지언정 확실한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전형적인 '문과 머리의 이과생'이었습니다. 국어와 영어는 원래 감각을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가장 취약했던 수학과 탐구에 최대한 많은 시간을 내어 틈틈이 공부를 했습니다.

국어는 비문학과 문학 지문을 각각 한 개씩, 영어는 하루 8지문을 풀며 감을 유지했습니다.
수학 과목의 경우 현역 때 풀지 못했던 킬러 문항에 새로이 도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저는 현역 시절 문제가 조금만 꼬여 있어도 손대지 못했고, 그러니 점수는 항상 더 낮아지면 낮아졌지 일정 점수대 이상을 넘지 못했습니다. 점수도 점수지만 아예 문제를 보지도 않고 넘어간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린 개념과 공식을 다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실력을 쌓으며 킬러 문항에 도전했습니다. 저는 고광민 선생님의 수업을 대부분 들었는데, 선생님의 명쾌한 해설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들어서서는 매주 모의고사를 실전처럼 풀고 곧바로 해설을 들으며 하루 대부분을 수학에 투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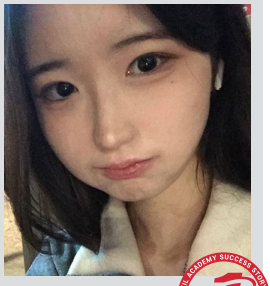
탐구 과목은 제게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생명과 지구과학을 선택했지만, 현역 때는 탐구를 버렸던 저로서는 기본 개념부터 다시 채워 넣어야 했습니다. 선발반에서 개념을 1회독하고 정규반에서는 많은 양의 문제를 풀며 세세한 개념까지 필기한 내용을 백지에 다시 써 보며 점검했습니다. 제게 가장 불안한 과목이었기에, 무엇보다 우직한 방법으로 공부하길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해 드리고 싶은 말은 자기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재수생치고 생활 습관이 무척이나 좋지 않았습니다. 늦게 잤고, 야식을 자주 먹었으며 운동에 소홀했습니다. 중반기에 들어서는 이모든 행동이 고스란히 체력 저하로 돌아왔습니다.

대학에 합격하는 것도 물론 정말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 또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말을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지나간 점수는 이미 지나간 점수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재수하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시험을 보게 될 텐데, 그것 하나하나에 감정을 소모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서 부족한지, 무엇이 빠졌는지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만 힘쓰셨으면 합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린 만큼, 이 기나긴 1년의 끝이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였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보기

2026학년도 합/격/수/기



국민대학교 미래융합전공(C) 합격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합격

조서연 (용산고)

나 자신만의 루틴, 목표를 이루는 지름길!

안녕하세요. 저는 제일학원 재수종합반 32반에서 공부하여 정시전형에서 고려대 디자인조형학부와 국민대 미래융합전공C를 합격한 조서연입니다. 고3때의 저는 3년 내내 공부를 적당히만 해왔음에도 만족스럽게 나오는 성적 덕에 정시라는 입시제도를 안일하게 생각하였고, 제대로 된 공부법을 터득하지 못한 채로 수능을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술술 읽히던 국어지문들이 두 번, 세 번을 다시 읽어도 이해가 가지 않았고, 감으로만 풀어도 잘 풀리던 영어는 주제조차 파악하지 못한 지문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결국 2025수능에서 평소보다 훨씬 떨어진 등급을 받게 되었고요.
그때 저의 성적은 제가 목표하는 대학에 지원하기에는 애매한 성적이었으나, 미대입시인 만큼 실기라는 또 하나의 기회가 있었기에 하루하루 마음 졸이며 1월에 있을 실기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지만 성적이라는 벽을 뛰어넘지 못했고, 당연하게도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실패감에 우울해져있을 때 어머니께서 재수를 권유하셨고 3월부터 제일학원에 다니며 재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합격수기에서는, 가장 큰 성적 변화가 있었으며, 9개월 동안 깊게 생각하고 고민하며 얻어낸 저의 국어공부 방법을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어 (백분위 89, 2등급 -> 백분위 99, 1등급)
재수를 시작하고 나서, 항상 만족스러웠던 국어과목이 수능에서는 무너진 이유를 알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정리한 저의 문제점은 이러하였습니다.
1. 무조건 글을 빨리 읽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2.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많다.
3. 기출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우선 저는 2000년부터 2025년까지의 평가원의 모든 비문학 기출을 시험지 양식 그대로 프린트하여 책처럼 만들었습니다. 현역 수능을 응시해본 결과 국어는 현장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러므로 최대한 현장과 비슷한 환경에서 문제풀이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결로, 아침에 내 뇌를 깨우는 것은 무조건 국어지문이어야만 한다! 라는 다짐을 하며 국어 지문 세 개와 함께 아침을 시작하는 루틴을 짜기도 하였습니다. 국어영역은 아침에 응시하기 때문에 국어지문으로 뇌를 깨우는 것을 습관화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매일아침을 국어 세 지문으로 시작하다보니 점점 양이 쌓이기 시작했고, 반복해서 푸는 지문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문들을 풀면서 느낀 가장 중요한 점은, 평가원의 코드를 체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복학습을 하다보면 유독 정답과 이어지는 때가 많은 문장구조나, 단어들을 발견할 때가 있을 것 입니다. (문장구조의 예시: 정의, 비교대조, 비례반비례, 예시, 과정 등. 단어의 예시: 고유한, 특정한, ~의, ~로 등.). 저는 이런 것들을 평가원 코드라고 이름붙이고, 발견할 때마다 일부러 눈에 잘 띄도록 크게 표시하고 넘어가곤 했습니다. 또한 문제를 다 푼 후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고 문제를 풀었던 저의 모든 사고과정을 문단마다, 문제마다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한 후 문제의 선지를 하나하나 뜯어보며 '아 이 선지는 평가원 코드 중 비교대조를 사용한 선지였구나. 그럼 내가 문제를 푸는 도중에 이 코드를 발견하고 표시해 두었다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겠네.' 라는 식으로 되새기고, 다른 노트에 이 점을 기록하여 자기 전에 한 번씩 정독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더해, 문단의 중심내용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좀 들여서 요약할 수밖에 없겠지만 내공이 좀 쌓인 뒤에는 시간에 쫓겨 독해하는 와중에도 머릿속에서 요약이 되어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방식대로 기출공부는 물론 무조건 빨리 읽으려고만 하는 습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넘어가는 습관 등을 고칠 수 있었고 모의고사에서도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꼭 매일 세 지문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하루 한 지문만 위의 방식대로 분석한다면 어느새 실력이 늘어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과목 중 영어는 따로
국어만큼 연구하진 않았으나, 제일학원의 이용국 선생님의 영어수업을 들으며 그때그때 수업 내용을 복습하고, 모르는 단어를 정리해놓는 저만의 단어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해석이 매끄럽지 않았던 부분은 따로 이용국 선생님께 질문을 하여 보다 정확하고 쉽게 영어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수업을 꼼꼼히 복습하는 것만으로도 실력이 많이 느는 게 체감이 되어 신기했고, 다소 어려웠던 2026 수능 영어에서 기대했던 등급을 받을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공부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재수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멘탈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래 멘탈이 강한 사람이 아니었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무너지는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수생활 중 간중간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가끔 너무 버거워서 다 포기하고 싶은 기분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자나 깨나 비교의 연속인 이 생활이 대체 언제쯤 끝날까? 정말 끝나기는 하는걸까?… 하지만 여러분 결과가 어떻든 간에 모든 일엔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의 노력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겁니다. 하루를 끝마치고 침대에 누워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일과를 보냈는지 떠올리며, 자신을 믿어주고 다독여주세요. (제가 힘들 때마다 듣던 '마시따밴드 - 돌멩이' 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 정말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도 힘들 때 마다 이 노래를 듣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힘들 때마다 옆에서 응원해주시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이종혁 선생님! 덕분에 긴 재수생활을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목차 보기

2026학년도 합/격/수/기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계열 합격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합격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부 합격

조윤서 (대전여고)

비 갠 후 맑음!

안녕하세요. 글을 매끄럽게 쓰는 편은 아니지만,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기를 바라며 현실적인 합격 수기를 남깁니다. 저는 작년 수능에서 35455성적을 받았고, 확통·사탐으로 전향한 뒤 성적을 끌어올려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아마 재수를 앞두고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시기일 것입니다. 저 역시 작년 이맘때 재수를 결정하며 여러 선택지 앞에서 오래 고민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고민은 '어디에서 재수를 할 것인가'였습니다. 재수는 기간도 길고, 생활의 대부분을 한 공간에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환경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독학 재수를 생각했지만, 부모님의 권유로 2월 말부터 수능보기 직전까지 제일학원에서 재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에서 규모가 큰 재수학원이라서 제일학원을 선택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공부 환경과 시스템 면에서 나이스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학원은 공부에 집중하기 좋은 조건들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습니다. 생활 전반이 규칙적으로 굴러가고, 수업, 자습시간을 재종반 큰 틀에서 능동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름에도 냉방이 잘 유지되어 체력 소모가 적었고, 과목별로 다양한 선생님이 계셔서 본인에게 맞는 수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질문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분위기라는 점이 재수생 입장에서는 큰 장점이었습니다.

고3 때도 정시 공부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제대로 된 수능 공부는 제일학원에서 처음 시작했다고 느낍니다. 입시 현장을 오래 경험하신 선생님들의 수업은 단순한 문제 풀이가 아니라, 수능을 기준으로 한 사고 방식과 공부 방향을 잡아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인강만으로는 채우기 어려운 부분을 현장 수업에서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초가 부족하거나 생활 관리가 어려운 학생이라면, 학원 시스템 안에서 공부하는 것을 강력추천합니다.

저는 고3 때부터 재수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수시 성적을 바꾸기 어렵다고 느꼈고, 정시 역시 단기간에 크게 오르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불합을 겪었지만, 감정적으로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재수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기준은 분명히 정해두었습니다. 삼수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끝을 정해두고 시작한 선택은 재수 생활 내내 제 마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원 생활 동안 저는 적극적인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뭔가를 더 하려고하지않아도 학원시스템에 몸을 맡기면 생활 리듬이 자연스럽게 잡히고, 흐트러질 틈이 줄어듭니다. 초반에 가졌던 열정은 시간이 지나며 옅어지기 때문에, 시작할 때 최대한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됐습니다. 저도 2,3월에 공부를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수업을 처음 들을 때는 어렵게 느껴지는 내용도 많았습니다. 저 역시 '다 이해하는데 나만 못 따라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복습과 인강을 통해 수업 내용을 보완해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수업이 완벽히 이해되지 않아도, 흐름만 따라가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공부 방법
학원 수업은 여러 강좌를 직접 들어본 뒤, 저와 맞는 수업 위주로 선택했습니다. 초반에는 개념 정리에 집중하며 자습 시간을 충분히 확보했고, 후반부에는 필요한 과목만 남겨 효율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제일학원에서 제공하는 수특·수완·수업 자료·주간 콘텐츠만 충실히 따라가도 공부량은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수학은 기초 개념반 수업을 중심으로 들었고, 부족한 부분은 EBS 인강으로 보완했습니다. 기초가 거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EBS 개념서를 3,4번 반복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정리한 선생님 풀이를 자습 시간에 다시 풀어보며 문제유형에 따른 접근방식을 익혔던 것이 성적 상승에 가장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국어는 기출 문제 풀이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화작 선택자로서 화작 문제도 충분히 풀었습니다. 정규 수업 외에 단과 수업을 4달동안 수강했었는데 수능 경향을 파악하는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단과수업은 한 달용이라기보다 강사님이 수능 때까지 생각하시고 수업을 계획하시는 운영방식에 가까우니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한 달 찍먹한 단과가 있었는데 큰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수능 직전
수능 직전에는 수학에 다시 집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학 성적은 만족스러웠지만, 사탐은 성적이 대폭하락하여 다소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사탐은 기출만으로는 부족하고, 개념서에 있는 내용 전반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이 시기에 사탐 개념을 한 번 더 정리했을 것 같습니다.

재수 생활이 길어지다 보면 모든 것이 지겨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 그냥 모든게 다 지겨워져요. 저는 등원방법을 바꾸거나, 정독실과 공부공간을 바꾸는 등작은 환경 변화를 주면서 버텼습니다.익숙해질 때 쯤에 환경을 한 번씩 바꿔주는게 숨이 안 막히더라고요. 학원 내에 큰 틀이 있기때문에 한낱 학생인 제 선에서 크게 변화를 줘도 망하는 길로 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땐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슬럼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슬럼프라는게 그냥 공부가 잘 안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시간이 갈수록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한 8월 쯤이네요.. 작수성적보다 6모성적이 너무 올라서 여기서 뭘 더해도 그 성적은 못넘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공부하기 싫었고 빨리 수능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극복방법은 그냥 학원에 오는 것입니다. 학원에 와서 공개자습실에 앉아있으면 뭐라도 하게됩니다. 제2방안은 처음 시작할 때 그 열정이 다 식었으니 다른 가슴뛰게 하는 뭐라도 가끔 생각하면서 강제로 공부의욕을 끌어모으는 거참 좋은 방법입니다.

재수 생활은 막막합니다. 다만 너무 무겁게만 생각하지 않으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하루하루 할 일을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수능 끝나있고 생판 다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지루하게 매일을 살다보면 계속 이렇게 살 것 같고 비관적으로 인격교체되겠다싶은데 재수생활 벌써 까먹었어요. 내다버린 1년이에요. 1년정도는 지우고 살 수 있어요. 제가 응원드려요.합격

수기니만큼 거룩하게 마칠게요. 제일학원에서의 재수 생활은 수능 공부뿐 아니라, 제 생활과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도움을 주신 많은 선생님들과 제 지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했습니다! Thank you 谢谢 Cảm ơn شكرا لك

목차 보기

2026학년도 합/격/수/기



우석대학교 한약학과 합격

조은정 (문정여고)

어떠한 실패가 와도 부서지지 않으면 더 강해질 뿐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만 30살로 우석대학교 한약학과에 합격하게 된 조은정입니다. 저는 14년도 한국교원대학교에 입학하여 졸업 후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5년 넘게 직장생활을 하였고, 24년도부터 노베이스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혹시 저처럼 늦은 도전을 시작한 분에게 도움이 될까 하여, 혹은 학생들에게 이런 사람도 있다는 도전의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 합격수기를 적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이유

저는 항상 진로에 있어서 어떠한 열망이나 꿈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주변에서 권유하는 대로 안정적인 직업인 교사가 되었습니다. 항상 이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인가 하는 고민이 많았고, 이 길에 있어서 더 발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성장을 위해 노력하며 자기를 계발할 수 있는 길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한의대를 목표로 직장을 그만두고 집 근처의 재수학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실패와 그에 대한 마음가짐

24년도 첫 도전 때 독학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꿈이라는 게 생기고 주어진 길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길을 가게 되니 인생 처음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더군요. 심지어 정말 재밌게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많았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수능공부를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실전감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과공부가 처음이라 특히 탐구과목에서는 늘 시간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체계 없이 맨 땅에 헤딩하면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 때 한의대는 현실적으로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과 함께 처음 한약학과도 알게 되었고, 관련 책도 읽어보며 오히려 한의학보다 적성에 맞는 과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25수능을 보고 한약학과에 지원을 했습니다. 결과는 불합이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실패를 겪었고, 나이가 있기 때문에 실패한 1년, 그리고 앞으로 공부해야 할 1년에 대한 조급함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멈춰있다고 여겨지는 시기를 견뎌내면서 저는 사실은 전혀 멈춰있지 않았고, 많은 내적인 성장과 강인함을 길러냈다는 것을 느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실제로 꿈을 향한 노력을 한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부서지지 않으면 더 강해질 뿐'이라는 글귀를 마음 속에 새기며 실패를 딛고 재도전을 위해 제일학원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일학원의 장점

제일학원은 처음 입학상담 때부터 저에게 재도전에 대한 희망과 격려, 그리고 앞으로의 공부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었습니다. 장학금 혜택도 좋아서 내가 실패라고 여겼던 도전이 제일학원에서 장학금을 받고 학원에 다닐 수 있게 해주는구나 하는, 그래도 무언가를 이룬 듯한 성취감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건 곧 다시 한 번 재도전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또 과목별 선생님들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어서 맨 땅에 헤딩만 하던 저로서는 공부 방향을 잡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었던 제가 담임선생님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종혁 담임선생님은 학생들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섬세하게 케어해주는 열정적인 선생님임이 마음으로 느껴져서 학원생활을 덕분에 편안하게 할 수 있었고, 진로상담 또한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과목별 학습방법

노베이스에서 시작해서 제가 2년 간 공부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26학년도 6, 9 모의고사, 수능 통틀어 1등급을 2-3번씩은 받아 본 국, 영, 수 과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 처음에는 많이 느리더라도 정독연습을 하기

국어는 겉읽기하면서 빨리 읽으려는 습관을 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겉으로만 읽고 내용파악을 제대로 안 한 상태로 문제를 풀게 되면 결국에 다시 돌아가서 읽는 걸 반복하면서 천천히 정독하고 문제를 푸는 것보다 시간이 오히려 더 걸립니다. 정독의 힘을 믿고 다급해지는 마음을 다스리며 한 문장 한 문장 머릿속에 이해하며 읽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 단어 학습과 선지 골라내기가 중요

영어는 수능 단어 익히기가 가장 중요하고, 그 후 어느 정도 독해가 되면 맞는 선지를 골라내는 감도 중요한 과목입니다. 제가 영어뿐만 아니라 14수능 때 사탐 두 개를 만점 받았을 때도 썼던 방법인데, 헷갈리는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어떤 선지가 맞을까?'보다는 '어떤 선지가 정답이라고 했을 때 이의제기나 논란이 일어날까?'로 생각해보면 의외로 걸러지는 선택지가 보일 때가 있다는 것도 팁입니다.

수학 - 유명한 인강만 고집하기 보다 나에게 맞는 인강을 찾아라!

수학은 일단 제일학원 수업으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 인강으로는 유명하다는 정승제 선생님, 현우진 선생님 인강으로 시작했었습니다. 정승제 선생님은 기본 개념이해엔 아주 좋았고, 현우진 선생님은 기본 실력이 부족하고 수학적 감이 떨어지는 저랑은 잘 맞지 않더군요. 뒤늦게 양승진 선생님의 강의를 듣기 시작했고, 수능 보기 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처럼 수학적인 감이 좀 부족한 문과형 인재에게 아주 추천하는 선생님입니다. 결론은 제일학원 수업 열심히 듣고 숙제 잘 하기 + 맞는 인강 찾는 걸 두려워하지 말기!

글을 마치며

늦었다는 생각에 조급해지기도 했고, 실패 앞에서 방향을 의심한 적도 있었지만 그 시간들마저 저를 더 단단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시작이 남들보다 늦어도 괜찮고, 속도가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누군가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루를 쌓아가다 보면, 반드시 노력의 의미를 증명하는 순간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목차 보기

2026학년도 합/격/수/기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합격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합격

최의정 (성모여고)

뚜렷한 목표를 세워라!

안녕하세요. 저는 제일학원 재수종합반에서 수능 준비를 하여 서울교육대학교와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에 합격한 최의정입니다.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 마지막 수능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과 격려가 되고자 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제일학원을 다니기 전

저는 고등학교 시절 흔히 말하는 수시파이터였습니다. 말만 거창하지 그다지 내신 성적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결국 원하는 대학에 지원조차 하지 못한 채 현역 시절 홍익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당시에는 심신이 많이 지쳐있던 상황이라 학교를 다녀보기로 결정했고 1학년을 전부 마쳤습니다.

제가 1년이라는 공백을 가졌음에도 다시 도전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전공 적합성과 자존감입니다. 아마 이 수기를 보는 많은 분들은 후자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리라 예상합니다. 둘 다 물론 중요하지만 현역은 아무래도 전공 적합성을 간과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번 도전 끝에서도 원하는 바를 성취하지 못할 가능 세계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 끝에서 전공 적합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같은 고민을 반복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재수 생활에 지쳐서 집중이 되지 않을 경우 정말 내가 원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고찰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디 이상은 가야지'라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뚜렷한 목표를 세우는 게 수능 때까지 여러분들을 이끌어줄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제일학원을 다니면서

우선 저는 제 선택과목에 해당하는 모든 선생님들의 수업을 들어본 뒤, 그 중 제게 가장 잘 맞는 수업을 추려서 끝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홍대를 다니면서 1년 동안 수능 공부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탓에 많은 것들을 잊어버린 상태였지만 재종반 수

업을 통해 점차 감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수업을 듣는다고 만천하가 해결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예습과 복습의 습관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습의 중요성은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예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습 없이 수업을 들으면 '이미 아는 것 같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반면 예습을 함으로써 내가 모르는 부분이 무엇인지 분명해지고 수업 시간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이 누적되며 이해 속도와 전반적인 학습 효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또한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풀어가시는 사고 과정을 반복해서 복기하려 노력했습니다. 단순히 풀이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생각하셨을까'를 따라가려 했던 경험이 성장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어 손원천 선생님, 수학 고광민, 이산 선생님, 생윤 이향복 선생님의 수업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손원천 선생님께서 입이 닳도록 강조하셨던 '정리하라' 그 말씀대로 지문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니 이번 불수능 국어에서도 크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고광민 선생님은 도형 부분에서 이산 선생님은 산수 테크닉 부분에서 두 분의 강점과 수업 스타일이 다른데 개인적으로 저는 두 분 수업을 모두 소화해낼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사탐런을 한 저에게 생활과 윤리는 막막한 과목이었는데, 이향복 선생님의 수업은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과 같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생활 패턴의 측면에서도 재수종합반을 택한 것은 지금 돌이켜봐도 현명한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잘 흐트러지고 독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기에 일정한 통제가 있는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재수 초반에는 누구나 의욕이 불타오르지만 점점 누적되는 피로와 불안 등은 생활 패턴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공부했던 것이 끝까지 페이스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6월 모의고사 이후 생각보다 성적이 오르지 않아 불안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안되면 어쩌지'하는 불안과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초심을 떠올리며 하루 계획을 다시 정리했고, 감정이 아닌 루틴을 따르려 노력했습니다.

-마치며

이 합격 수기를 읽고 있는 분들 중에는 재수, 삼수 혹은 그 이상의 도전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횟수로는 재수생이었지만 나이로 따지자면 삼수생이었기 때문에 부담감이 컸습니다. 따라서 이번 도전 이 한방에 모든 걸 걸고 싶었고 공부하는 동안에는 방해될 요소들을 만들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제일학원을 다니며 불필요한 친목도 쌓지 않고 홀로 공부했고 출석 체크를 할 때 "네"라는 한마디 외에 아무런 말도 뱉지 않고 대부분의 날들이 끝났었습니다. 원래의 저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대화하는 걸 좋아해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그 시간들은 제게 꼭 필요한 고독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학원에 등록하기까지 나름의 각오와 목표를 가지고 들어오셨을 테니 후회가 남지 않도록 공부에 불필요한 요소들은 현명하게 쳐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능까지의 여정을 마라톤이라 생각하시고 너무 급하게 초조해할 필요 없이 온전한 페이스를 유지해 완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많은 모의고사들을 보게 될 텐데 그 점수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줏대 있게 본인이 정한 대로 나아가면 분명히 빛을 발하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인드가 반이다." 이종혁 담임선생님께서 종종 해주시던 말씀이었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믿는 그 힘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여러분들을 종착점까지 이끌어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목차 보기

To become an able and successful man in any profession,
three things are necessary, nature, study and practice.

어떤 분야에서든 유능해지고 성공하기 위해선
세 가지가 필요하다.
타고난 천성과 공부 그리고 부단한 노력이 그것이다.

헨리 워드비처 Henry Ward Beecher

